



미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한 백정현 동문이 뉴멕시코주를 지나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 제25차

# 미주평의원회의 성낙인 모교 총장·귀빈 참가 예정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제 25차 미주평의원회의 반갑고 귀한 분들이 내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주총동창회 본부에 의하면 6월1일 현재 25개 지부 50여명의 평의원들이 참가신청을 보내왔으며, 모교의 성낙인 (행정학 69) 총장 일행 4명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교에서 매주 발행되는 '대학신문'의 주간 및 지도교수인 임경훈(정치학과 81)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설자 오준 유엔대사와 네명의 브레인네트워킹 김용현 (경영대학원 66) 신시내티대 교수, 한창규 (의대75) 유펜 교수, 김영수 (공대76)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김연호 (외교학 88)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의 심포지움 강사들도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외에도 이번에 갑작스런 발부상으로 참석치 못하는 서정화 모교총동창회장을 대신해 모교 총동창회를 대표할 이민섭 (정치학과 59) 부회장, 류연수 (잠사학과 67) 부회장과 김경태 총동창회 전무 등이 축하 사절로 참가

할 예정이다.

23일 저녁까지 도착하는 평의원들을 위해 동창회 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블루벨 지역 아리수 식당에서 갖게되는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심포지움, 평의원회의, 마지막 날 골프대회까지 계속될 이번 평의원회의는 축제 성격의 모임일 뿐 아니라 미주총동창회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동창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평의원회의가 되리라 기대가 크다.



성낙인 총장 (법대 69)



오준 UN대사 (문리대 74)



이민섭 부회장 (정치학과 59)



류연수 부회장 (잠사과 67)



김경태 전무



임경훈 교수 (정치학과 81)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 |                                     |                                     |
|-------------------------------------|-------------------------------------|
| 1 백정현 미대륙횡단/ 미주평의원회의의 귀빈들           | 11 지부: 샌디에고/뉴잉글랜드/필라델피아             |
| 2 사설: 동창회의 활성화                      | 12-14 지부: DC/뉴욕/남가주                 |
| 3 논설: 한반도 전쟁방지/ 오만과 민심의 바다          | 14-15 음악: 장용복 오페라산책/인터뷰: 백정현 대륙횡단   |
| 4 트럼프 클린턴의 대북발언/ 이은주교수 NYT 기고       | 16-17 기획특집: '만나고 싶은 사람'             |
| 5 박윤수 수상/하형록 수상/성김 대사/권순민 체스/석지영 교수 | 18 건강: 은퇴 우울증/알로에/책 광고              |
| 6 인터뷰: 워싱턴가정상담소 한정민 소장              | 21 신간: 강창욱의 '이광수 단편번역' /박혜숙: 미술칼럼   |
| 7 소개: 벨리포지 국립공원                     | 22 음악: 이현림 현대음악의 시작/ 김창수: 칵테일 상식    |
| 8-9 My Story & Your History         | 23-24 논단: 김지윤/ 부고/ 영화: 너두십 황태자의 첫사랑 |
| 10 지부: 조지아/룩키마운틴스/테네시               | 25 이달의 사진/독자의 광장                    |



[사설]

# 미주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2016년 제 25차 미주총동창회 평의원의회가 이달 24-26일 동안 제13대 총동창회 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27개 지부를 대표하는 평의원들 중에는 종신이사들과, 각 지부회장들 그리고 새로 평의원에 선출되어 참석하게 되는 동문들이 있다. 만나기 힘든 각 지부 대표들이 1년에 한번 자리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의원회의의 의미는 상당하다 하겠다.

멀리 모교로부터 참석하게 되는 성낙인 총장으로부터는 미주총동창회를 바라보는 모교의 시선을 느껴볼 수 있을테고, 기조연설자(Keynote Speaker)로 오게 된 주유엔대사 오준 동문으로부터는 그가 그동안 보여준 인간애(Humanism)에 입각한 감동있는 연설을 기대해 보기도 한다. 금년으로 5회를 맞게되는 Brain Network Symposium에서 발표할 경제, 과학, 건강, 북한문제의 네명의 석학들에 거는 기대 또한 상당하다. 이외에도 몇번에 걸친 만찬, 필라델피아 관광, 골프대회, 음악회 및 지부 장기자랑 등의 행사들이 짧은 2박3일 동안의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요일 하루종일에 걸쳐 있을 평의원회의 그 자체이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해 보고, 미주총동창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같은 경우 '한국학 연구소 설립' 안건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만족할만한 결론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런 평의원회의를 앞두고 우리 미주총동창회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해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보아야겠다. 회칙 제1장에 명시된 동창회의 존재 목적은 다음과 같다.

**CHAPTER I. GENERAL**  
**Article 1 (Name)**  
The name of this Corporation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 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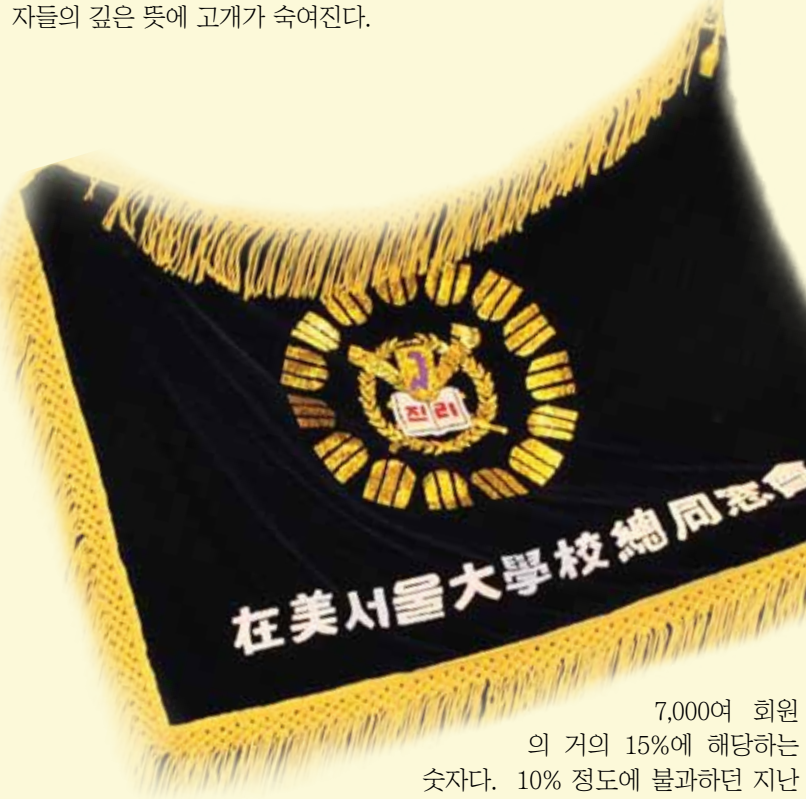
**Article 2 (Purposes)**  
(1) The Corporation is organized and shall be operated exclusively for charitable and educational purpos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70 (c)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s amended (the "Code" ). In furtherance of its

purpose, the Corporation shall promote a mutual friendship among the alumn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intain and enhance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individual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and provide continued efforts and contributions on behalf of the alumni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lma Mater.

미주총동창회의 설립목적이 Charity와 Education이라고 내 세운 설립자들의 깊은 뜻에 고개가 숙여진다.

위한 보조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동창회보 발행하는 일이 미주총동창회가 하는 일의 90%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동창회의 1년 예산이 20여만불이다. 그런데 동창회비(1인당 \$75불)와 각종후원금, 광고비등을 합쳐도 6월1일 현재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회장 개인이 채워온 모자라는 부분을 포함해서도 적자 상태인 것이다.

이번 회기에 회비를 낸 동문은 1,000 명을 넘었다.



7,000여 회원의 거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다. 10% 정도에 불과하던 지난 회기들에 비해 거의 6.7 년만의 일이라 한다. 그런데 예산의 절반이상이 동창회보 발행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 그리고 1,000명이 보내준 7만5천불의 회비중 2박3일의 평의원회의에 그 40%인 3만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를 조금 의아하게 만든다. 물론 평의원 각자가 비행기표, 호텔숙박비 외에 100불의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후원금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2만불 정도라고 한다. 그래도 2박3일 행사에 1/3에 가까운 회비를 사용해야 하는가? 예산의 합리적인 배정과 실천이 중요하다.

총동창회는 이런 목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13대 회기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동창회 본부가 하는 일은 위의 설립목적에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미주 전체의 동문들을 대표해 모교의 발전을 돕는 일이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동창회보 발간외에 특별히 뭔가를 한 것 같지가 않다. 지부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다. 동창회보를 발간하는 일이 총동창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다. 동창회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고 모교에서 미국내에 설립한 '미주재단' 이 미주총동창회 바깥에서 별도의 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후원금 리스트에 '선한인재 장학금 기부자'들이 있으며 이 '선한인재 장학금'에 이번 회기에 11만여불의 기부금이 모교로 보내졌다. '미주재단'을 통해서도 2011년 설립이래 년 100만불 정도가 모교로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직에 대해 동창회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가? 'Education Committee(장학위원회)' 라고 말이다. 이 '장학위원회'는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모교로 보내는 것'과 '미주내에서 사용하는 것' 두가지로 나눠서 운영하면 어떨까? 미주내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형편의 소규모 지부들의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또는 전미주를 상대로 총동창회 장학생을 선발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다.

첫번째 목표인 Charity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회칙이나 조직도를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위원화든가, 부서를 볼 수 없고, 현 집행부 조직표에만 '사회봉사담당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보인다. 현 회장단도 뜻은 있지만 적자 상태인 재정이라 힘든 일인 것 같다. 이번 회기에 적당한 예산을 배정하여, 이 첫번째 목적을 위해 각 지부들과 본부가 함께 노력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잘난 서울대 동문들, 지들끼리 잘먹고 잘 사는..'이라는 동포사회의 골치아픈 시선은 '어, 서울대 동창회가 이런 일을?'이라는 시선으로 돌려보자. 각 지역에서 음으로 양으로 사회 봉사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적지 않은 동문들과 단체들을 도울 수도 있을 테다. 우리 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포텐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들을 'Charity(나눔)'이라는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 보자. 총동창회의 존재 목적과 실행이 일치하는 세균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IRS에서 Audit을 받게되면 어쩌나?'라는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총동창회의 존재목적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발전적 토론과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욕적이고 실현 가능한 결정을 제 25차 평의원회의에 기대해 본다.

<편집인 김정현(공대68)>

[논설] 6.25 66주년을 맞으며

#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려면



이항열 (법대 57)

서양 철학의 거장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동물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갈등은 자연적 현상'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국제정치학에서도 소위 현실주의자(Realist)학파들은 마키아벨리(Machiavelli)나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처럼 '인간사회의 투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며 결국 힘(Power)으로만 견제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소위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상주의자(Idealist) 학파들은 평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서로 협력과 화해로서 타협을 해야 하며 이런 방법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상주의 학파의 근대 거장으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를 들 수 있다. 칸트는 데이비드 흄(David Hume), 루소(Rousseau) 등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의 유명한 저서 '영구적인 평화(Perpetual Peace, 1795)에서 국제화된 시민들과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면 국제사회가 평화롭게 변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두 학파의 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동안에도 인간들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도 해방 후 남북으로 갈라졌고, 1950년 6.25 남침을 자행하

였으며, 이 처참한 동족상잔은 삼년 후 일시적 휴전협정으로 불리적인 대규모의 전쟁은 하고 있지 않으나, 66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북한이 감행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으로,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금년 1월에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에 이어 잠수함탄도미사일(SLMB) 까지 잇달은 위협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은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방위실현으로 공동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북한침략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핵폭탄을 핵확산금지조약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발하여 현재 10여개 이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한과 미국이 자기들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면 서울만이 아니라 미국본토까지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문제인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나 무소리니, 도조 같은 독재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도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이 자기 권력체제를 유지시키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한다고 믿으면, 이것을 반대할 조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이 지도자들은 김정일이 오판하지 않도록 핵폭탄 반대가 확고한 국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물질이

나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한반도 주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봉쇄까지 고려해야 한다.

독재자의 오판외에, 전쟁발생 원인의 또 하나는 '자기충족적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지난 20여년간 되풀이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런 위협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여차할 시기에 핵무기 사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일부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실마 귀 위원장이 같은 남한 동족에게 원자폭탄을 쓸 수 있겠느냐?' 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국가 생존에 '실마' 나 '혹시' 라는 단어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힘의 균형에서 남한이 경제력과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북한보다 월등하나 핵무기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월등하나 핵무기에 있어서는 북한이 비대칭적으로 월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까?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총살시키는 비정상적인 폭군에게 대화나 타협이 가능한 것 같지 않으며, 결국 그런자에게는 현실주의적인 힘의 과시만이 통할 수 있다. 얼마전 야당의 대표가 '진짜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극단론도 있어서는 안된다. 김 씨일가의 독재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북한에서 굶주리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인간이면 슬픔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미국 해우산에게만 맡겨서도 안된다. 현재 미국에서 막가파로 인기있는 대선주자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미국에 더 지불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또한 핵폭탄을 개발하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동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보복이 있을 수가 있으니 '사드'를 배치하면 안된다, 는 논리는 경제이윤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한국민 기본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의 손상도 각오해야 하며, THADD 배치를 중국에 이해서야 한다.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식민지정착을 얼마나 시러워했나? 지금 중국은 그들의 동북정책에서 보여주듯이 다시 한반도를 중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속국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6.25 전쟁때 중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 8천만의 한민족은 통일된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모든 면을 고찰해 볼 때, 대한민국은 과거와 같은 수동적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 전략으로 북한의 독재자와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북한과 그 위성자들과 대화, 접촉이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성에도 안보 불감증에 걸린 많은 국민들에게 더 설득시켜야 하며, 66년 전의 전쟁에서 수백만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사드' 구축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폭탄 공격 발사를 준비할 때는 한국도 선제공격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 독재자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논설위원장, 전 세파대대학 석좌교수>



[논설]

# 오만과 민심의 바다

뜨거웠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양당 구도를 여소야대(與小野大)의 3당 체제로 뒤집어놓은 총선 민의를 둘러싸고 그 여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서울대 동문은 120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6명으로 같고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132명)에 비하면 당선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들은 선거 기간 내내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바다 민심의 엄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어느 정치 세력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지 않은 절묘한 '항금분할'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의 키워드를 '오만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이유다. 도도한 민심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정치'에 빠져들면 정치권은 언제든 시 심판대에 섰다. 이번 총선도 그 '철칙(鐵則)'을 벗어 나지 못한 것이다.

김대중(DJ) 총재는 전국구에서도 낙선했다. 대선후보 자리까지 위협받으며 2선 후퇴 공세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生物)이었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YS는 강경 드라이브를 밀어붙였다.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야당의 누구를 내세워도 DJ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니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오만이 화를 불렀다. 노동법 날치기 사태가 벌어지면 민심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권은 대선후보 조정으로 자중지란을 겪었고, DJ는 'DJP 연대'라는 극단적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1997년 대선은 DJ 승리로 끝났다.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20년 전 정국을 많이 떠올렸다. 몇 차례 재보궐선거 승리로 으쓱해진 새누리당은 민심의 여과장치를 던져버렸다. 친박-비박이 맞붙은 지루한 내전에 들어가면서 공천 파동의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오죽하면 평생 1번만 적었다는 일부 유권자들이 "이번에 절대 투표 안 한다"며 기권을 했을까. 더민주도 당의 주력 기반인 호남에서 참패한 현실을 냉정하게 되새겨야 한다. 우리가 야당의 적통인데 우리가 공천만 하면 다 따라와야 한다는 오만이 발동한 탓 아닐까. 제1당의 전과(戰果)가 여당 심판에 대한 반사이익인데도 "우리의 승리"라고 우쭐해하면 민심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제3당의 교섭단체를 확보한 국민의당은 두 거대 정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한 민심이 잠시 거쳐 간 임시 정류장일 뿐이다. 민심은 다시 총선 이후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선거 승리한 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오만으로 비칠 만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전권을 준 것이 아닌데, 착각하지 마라."

중국 고전인 정관정요에는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의 '수능재주 수능복주(水能載舟水能覆舟)'라는 말이 있다. 물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이다. 민심의 바다는 언제든지 출렁인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국민은 호랑이다. 민심을 잘 보고 가야 한다"며 "거슬리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갈파했다.

서울대 동문 당선인들은 앞에 펼쳐진 20대 국회 의정활동이 거대한 민심의 바다 위에 떠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발인과 행동이 오만으로 비쳐지면 민심의 바다를 헤쳐 나갈 수 없다. 당선 기쁨은 누리되 그 여운은 짙아야 한다. 이제 민심의 바다로 항해를 나갈 동문 당선인들의 건승을 기대해 본다. <총동창회보 논설위원>



정연욱 (공법 85)



# 대북 대화카드 낸 트럼프, 클린턴 차별화

칼럼



채병건(사회대 87)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놓고 강연이 뒤바뀌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 가능성까지 꺼내든 반면 클린턴 측은 정권 붕괴에 이어 압박 강화를 거론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와 무슬림

에선 패자인 트럼프와 비둘기파인 클린턴이지만 북한 대응에선 외견상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선택의 폭을 더 넓혀 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클린턴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 16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사이버 연설에서 북한을 협상으로 돌리는 유일한 길은 급격하게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란식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설리번은 이란을 핵 포기로 이끈 이란식 모델을 놓고 “집요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짜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클린턴의 책사로 알려진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지난 3일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북한의 정권 몰락이나 쿠데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설리번의 연설을 놓고 “트럼프와는 달리” 클린턴이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도 클린턴과 동일하게 중국을 압박해 북한 압박을 대폭 강화한다는데선 동일하다. 그러나 그간 북한과 김 제1위협장을 혐오 대상으로 취급했던 트럼프가 17일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클린턴과 트럼프의 북한·김정은 발언



도널드 트럼프

“누구도 미치광이가 앉아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15년 9월)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6년 5월 17일)



힐러리 클린턴

“(대북정책에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2010년 5월)

“강패 짓에 놀아날 수 없다. 핵을 앞세운 벼랑 끝 전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2016년 2월)

고 밝히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가 2008년 Barack Obama 대선 후보와 비교될 정도다. NYT는 “트럼프의 대화 언급은 오바마 후보가 북한 등 적대국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던 것을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NYT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 트럼프는 얼굴을 맞대는데 까지 갈 수 있다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듯하다”며 “이는 지난 30년의 외교를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국-일본의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도 비핵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최고 협상이 트럼프를 내세운 것이라 현실화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도 여전히 있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정상 간의 만남은 핵 보유를 정당화해주는 꼴”이라며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후엔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반기문 사무총장은 18일 뉴욕 컬럼비아대 졸업식 연설에서 “정치인들과 지도자가 되려는 이들이 인종차별과 증오의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막말을 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트럼프, 여론조사서 클린턴 추월 또 등장=폭스뉴스가 18일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5%를 얻어 42%의 클린턴을 오차범위 내에선 앞섰다.

지난 2일 라스베이저스 조사에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추월한 데 이어 다시 트럼프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폭스뉴스 조사에선 성·인종 대결 양상이 재현됐다. 여성 유권자에선 클린턴 50% 대 트럼프 36%인 반면, 남성에선 트럼프 55% 대 클린턴 33%였다. 백인에선 55% 대 31%로 트럼프가 앞섰고, 흑인(90% 대 7%), 히스패닉(62% 대 23%)에선 클린턴이 앞섰다.

트럼프는 대졸 미만 백인 층에서 61%를 얻어 압도하며 클린턴(24%)을 크게 앞섰다. 특히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도 응답(61%)이 처음으로 트럼프 비호감도(56%)를 넘어섰다.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 The New York Times

### 모교 이은주 교수 뉴욕타임즈 기고 댓글(comment) 시스템 폐지 주장에 반대



이은주 (사회대 91)

뉴욕 타임즈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쟁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은주 교수의 칼럼에 대해 뉴욕 타임즈 온라인 사이트에서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달며 토론을 벌이고 있다. NY Times Original article: Eun Ju Lee,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e incoming editor in chief of the journal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Comment sections can have interesting effects on readers. For one thing, the mere existence of them at the bottom of a story can change how readers perceive the partiality of the reporting. My research has found that when comments are uncongenial to a reader's own opinion especially on an issue that hits close to home the reader is more likely to blame the article for bias.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rate the same story more negatively when accom-

panying comments are vulgar or inflammatory.

Comments can shape individual readers' opinions, of course, but more interestingly, they can also shape how a reader interprets public opinion more broadly. The extreme beliefs of a few can be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the beliefs of the general public distorting perceptions of reality.

Comments can distort how readers interpret public opinion and media bias, but they allow for a far more participatory news media.

Despite such misinterpretations, and the other risks that misguided, uncivil user comments may pose, I do not believe in shutting down user comment sections in most cases. Far from being the ideal public sphere wherein publicminded citizens openly share reasonable argu-

ments and are gracious about their opponents' perspectives user comment sections are none theless an important ongoing experiment that tests the via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cy.

We cannot expect everyone to act rationally online, but comment sections can showcase competing viewpoints, arouse the public's interest in important issues and facilitate arguments around them. These forums allow for a far more participatory news media.

And there are ways around incivility. For example, rather than closing the comments sections altogether, many Korean news organizations allow readers to log in through their social media accounts. Their comments on one news site can be shared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decreasing anonymity. Such an attempt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may reduce, if not completely eliminate, abusive comments.

'Despite Flaws, Comments Are Good for Public Discourse'

## 박윤수 시 부문 신인상 수상 “늘 하고 싶었던 시 쓰기...”



2016년 5월 31일 Los Angeles에 소재하는 Rotex Hotel에서 열린 제18회 해외문학상 시상식에서 박윤수(문리대 물리학과 48, 사진 우) 박사가 시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박윤수 동문은 본 미주총동창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시 당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시 쓰기를 늘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문학활동을 갈망하면서도 평생 과학교육과 연구 그리고 행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사회봉사 활동과 교외성경에 여념없이 살아오느라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은퇴 생활을 시작하여 딱딱한 과학에서 벗어

나 정서적인 노후생활 방향을 구상하면서 용기를 내어 시를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뜻밖에 “해외문학” 신인문학상 당선 통보를 받고 한편 놀라웠고, 저에게 용기와 큰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86세에 시인으로 등단해 새 삶을 시작한 셈입니다. 저는 시 쓰시는 분들을 항상 존경합니다. 그들에게서 삶의 기쁨과 희망을 늘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조윤호 선생님의 훌륭하고 끊임없는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사랑방 글샘터)의 동우님들에게 감사합니다.”

## ‘엘리스 아일랜드 상’ 수상 하형록 대표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과학 자문 위원이며 건축디자인 회사 ‘Tim Haahs & Associates, Inc.’의 하형록(영문명: Timothy Haahs) 대표가 지난 5월 7일 미국 이민 역사의 상징적인 공간인 뉴욕 엘리스 아일랜드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엘리스 아일랜드 메달(Ellis Island Medals of Honor)을 수여받았다.

이날 하형록 목사가 수상받은 명예의 엘리스 아일랜드 메달은 매년 애국심, 관용, 형제애,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미국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미 전역의 유명인사 100인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하형록 대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과 함께,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온 봉사정신, 그리고 타인예기감이 되는 리더십 등을 평가받아 이날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여섯 명의 미국 전직 대통령 및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 힐러리 클린

턴(민주당 대선 후보),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 권투 선수), 바바라 월터스(Barbara Walters: 방송인), 등의 저명 인사들이 수상한 이 상을 받으며 하 대표의 부인되는 손재욱 본 미주총동창회 회장은 “상이란데 관심이 없는데, 이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과분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상식에 와서 훌륭한 다민족 이민자들이 함께 수상하는 걸 보며, 진정한 Melting Pot의 미국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에 대해 더 막중한 책임을 함께 느낍니다.” 라고 밝혔다.

## 성김대사 이번엔 필리핀 대사



은 이날 Barack Obama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공직 인사를 발표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냈던 김 대표가 필리핀 대사로 부임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 대사를 두 차례 맡게 된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정무직들이 절반 안팎을 차지하는 대사 자리를 놓고 전문직 외교관 출신으로 동맹국 대사를 두 번이나 거치는 것은 많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는데 공화당이 대신 정국에서 인준 절차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내 부임이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권순민군 미 전국 체스대회 우승



뉴욕에 거주하는 권오순(문리대 외교학과 69) 동문의 손자 Benjamin Kwon(한국명: 권순민) 군이 지난 3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국 체스대회에서 우승했다. 순민 군은 현재 맨하탄소재 Public school 인 PS77 (95th street/3rd Ave-nue)에서 1학년으로 재학중이다.

매주 한반씩 방과후 과정으로 chess를 배우고 있는 순민 군은 여러 토너먼트를 거쳐 지난 4월 뉴욕주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그 직후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3일간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다.

순민군의 소식은 뉴욕타임즈가 취재해서 4월22일자에는 뉴욕주대회 우승(뉴욕주사라토가에서 개최), 5월8일자에는 전국우승을 2번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 하버드 로스쿨 최고 교수로 석지영



뉴욕에 거주하는 권오순(문리대 외교학과 69) 동문의 손자 Benjamin Kwon(한국명: 권순민) 군이 지난 3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국 체스대회에서 우승했다. 순민 군은 현재 맨하탄소재 Public school 인 PS77 (95th street/3rd Ave-nue)에서 1학년으로 재학중이다.

이후 폴 앤 데이치 소로스 장학생으로 하버드 로스쿨 과정을 마친 석 교수는 연방 대법원에서 데이빗 수터 대법관의 로 클러크와 맨해튼 검찰청의 검사 등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하버드 로스쿨 조교수로 강의 시작, 2010년 종신교수가 됐다.

석 교수의 아버지는 서울대 졸업 후 뉴욕에서 개업하고 있는 위장내과 전문의 석창호(의대 66)동문이고 어머니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글로벌이리언재단 뉴욕지부 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성남씨다.





# 워싱턴 가정상담소 (FCCGW)

한정민 (Monica J. Lee) 소장 인터뷰

Website : www.fccgw.org  
703-761-2225

4월부터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인 한정민 (Monica J. Lee, 농가정과 87, Staff 사진 좌로부터 세번째) 동문을 본 동창회보가 인터뷰했다.

**상담소의 연혁과 설립 목적은?**  
1974년에 26명의 지역 여성들이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소장 이태영 박사)를 물 질로 돕기 위해 워싱턴 지부로 발족하여, 여러 모금행사와 바자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가난했던 한국의 여성들을 돕는데 보냈다. 70-80년대에 한인 이민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정폭력과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사회 여성과 가정을 도우며 가정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1997년에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이름을 바꾼 후 상담서비스와 청소년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소의 구성과 운영은?**  
Board는 이사장단과 자문위원 (전직 이사장들) 및 80여명의 후원이사들이 년 4번의 이사회를 통해 상담소 활동과 방향을 논의 결정한다.  
Staff는 풀타임 2명, 파트타임 1명 상담사가 있고, 3-4명의 상담인턴과 professional volunteer가 있다.

**동문 참여**  
후원이사들 중 동문들이 7-8분 계시다. 역대 이사장들과 초대 이사들이 50-60년대 유학과 부인이 많아 이사님들 남편의 약 20%가 서울대 동문인데, 연례기금 만찬에 함께 참석하여 상담소를 후원하신다. 2010년에 안창호 (약대 70) 박사/안인옥 (간호 71) 동문부부께서 Rexahn Pharmaceuticals 주식 330K (\$330K 가치)를 기증하셨다. 안인옥 선배는 2011-12년 상담소의 부이사장으로 일하셨고, 그 후엔 후원이사로 Ahns Foundation을 통해 매년 \$10K씩 기증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2013년에 12대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 오인환)가 상담소 사무실에 2년 동안 sublease로 들어온 것이 제가 총동창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계기다. 그 이후 오회장님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상담소 행사 때마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주신다. 작년 9월에 동창회 워싱턴 지부 (회장 : 장경태)에서 음악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중 일부 (\$600)를 기부해 주었다.

501-C3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도움을 받고 있는가?  
물론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Ahns Foundation 외에 ADS, Fry Foundation, Jurie Foundation과 한국 대사관 등에서 각각 \$5K-\$10K 그랜트와 보조를 받고있다. 5-6년 전까지 Fairfax Co. 와 United Way 같은 정부 기관의 재정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끊긴 상태다.

한정민 소장님 소개와 상담을 시작하게

**된 동기**  
91년 대학 졸업 후 친척방문 차 미국에 왔다가 2년 후 결혼하고 두 아들 (대학1학년과 3학년)과 자동차 바디샵을 운영 하는 남편과 23년째 Virginia에서 살고



있다. 상담을 시작한 동기는 2000년에 삶을 같이 엮는 어려움을 겪은 후 우울증, 자살충동 및 불안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7-8년 동안 말씀과 상담과 주변의 지지와 사랑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상처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가 되어 내게 일어난 귀한 힐링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교육심리 석사를, 2년 후 매릴랜드 로울라대학에서 목회상담 석사를 받고, 3년의 임상 경험 후 작년에 임상심리상담 license(LCPC)를 받았다.

**상담소 프로그램 소개 및 활동**  
1) 상담서비스  
개인, 부부 및 가족 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학습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ADHD 코칭 등을 전문 상담사들이 이중 언어로 제공한다. 주 25-30회의 내방 상담이 진행되고, 지난 일년 동안 1,401회의 face-to-face 상담이 제공되었으며, 전화 상담과 교육 컨설팅도 주 30-35건 제공된다.



2) 청소년 프로그램  
8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peer-to-peer (P2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1대1로 짝을 이루어 일주일에 한번 만나 학업에 대한 도움과 멘토링을 제공받으며, 3곳에

서 약 180명의 학생들이 참여 중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여름방학/겨울방학 캠프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 (사진: 아래)

3)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세미나가 매년 20여차례 진행된다. 또한 정기적인 신문칼럼 기고, 라디오 및 TV 방송 등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  
내담자와의 비밀보장 약속으로 자세히 나눌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 2000년도 대학원 2학년때 이곳에서 상담인턴으로 일할 때 만났던 60대 여성은 30년 넘는 결혼생활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도와 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었는데 상담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다. 6번을 만났을 때 '저처럼 힘없고 연약한 여성 내담자와 함께 쫓겨방에 가고 식사도 함께하는 일에 써주세요'라며 \$1,000을 상담소에 기부했다.그 일은 새내기 상담사인 내가 상담을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진심어린 공감과 함께 하는 마음'이란 귀한 교훈을 배웠다.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  
어릴 때부터 발달이 늦어 왕따를 자주 당하고 아버지에게 잦은 구타와 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힘이 생

기나 화가 날 때마다 집안의 물건 (유리문, 대형 TV 나 차의 유리창 등)을 부수고 엄마를 구타하곤 했다. 학교에서는 압전하나 집에서는 괴물로 변하던 아이. 상담실에 마주 앉아있으면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찬 살기등등한 눈빛은 마치 조승희와 마주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역시 어린시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기에 장기간의 가족상담을 권했으나 7-8번 상담 후 더 이상 오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웠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소장으로 역할을 바꿔임은 3개월이 됐다.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마주앉아 있을때가 제일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다. 그러나 소장이란 역할이 상담사의 역할 외에 전반적인 행정과 운영을 함께 감당해야하므로, 그랜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 한인이 20만명이 넘지만 비영리단체 상담소가 거의 없고 특히 아동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말 찾기 어렵다. 개인 상담소를 찾기에는 언어의 장벽과 비용이 비싸 \$150-\$200되는 상담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꿈을 꾸다면 <워싱턴 가정상담소>가 부모는 한국말로, 자녀는 영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센터로 자리잡아 형편이 어려운 한인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상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민가정 상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대학원생들이 상담 훈련을 받고 싶은 기관이 되는 것도 저의 비전이다.

**동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영적 능력과 긍정의 에너지를 믿기에 상담소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인사회는 물질과 시간과 man power가 교회와 종교단체에 집중된 경향이 크다보니 커뮤니티를 향한 물질과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다. 적어도 한국을 이끄는 엘리트 그룹인 우리 동문들은 내가 속한 곳을 넘어서 이웃과 커뮤니티를 품는 성숙함과 너그러움이 있길 바란다. 거기에 지갑까지 열어준다면 금상첨화... (호호) 비영리단체로서 동문들의 물질적 후원이 절실하다.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한 내담자가 한달에 한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1-1-1 후원자' (매달 \$20, \$30, \$50)도 모집 중이다.

**동창회보에 한마디**  
많은 동문들이 사랑하는 동창회보의 한 페이지를 상담소에게 할애해주심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귀하고 소중한 일 이기에 동창회에서 후원해준다고 믿는다. 미 각지에 흩어져 사는 여러 동문들과 선배님들의 좋은 글과 지역동창회 소식을 매달 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시는 동창회보 편집위원들과 임원들, 그리고 손재욱 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



전무식 (수의 61)

급년은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 창설 100주년(centennial)이 되는 해로서 Park 에서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필라에서 개최되는 미주총동창회 평의원의회의 동안 참석한 평의원들과 가족들이 방문하게 될 벨리포지 국립역사공원 내의 여러 Memorial Sites와 거기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1776년 7월 독립선언 후 영국군에게 밀리다가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날 밤 델라웨어 강을 건너 뉴저지 트랜튼을 기습 점령하면서 한 때 기세가 올랐지만 이듬해 본토에서 파견된 영국정규군에게 Brandywine, Paoli, Germantown, 전투 등에서 연속적으로 패한 독립군이 1777-8 겨울을 지낸 곳이 Valley Forge이다.

이 패잔독립군이 지나간 자취는 미주총동창회 본부가 위치한 볼투벤과 인접 지역 도처에서 볼 수 있다. Valley Forge는 독립전쟁 당시 실제로 전투를 벌인 장소는 아니지만 1777년 12월 19일부터 그 이듬해 여름까지 독립군 총사령관(Continental Army Commanding General) George Washington 장군의 지휘 본부와 그 휘하 병사들이 체계적 군사훈련을 받았던 역사적인 장소로 핵심했던 추위와 풍상, 식량 및 군복등 생필품의 절대 부족과 전염병, 일부 군인들의 반란까지도 견뎌내고 78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영국군이 퇴각하면서 다시 필라델피아를 탈환하고 이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어간 기틀을 마련했던 역사적 장소이다.



1. National Memorial Arch: Park 입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개신문은 고대 로마제국인 전쟁 승리를 기념해서 세웠던 그 개신문을 모방해서 1910-1917년에 완공한 건축물로 그 꼭대기에는 그 겨울 워싱턴 장군이 독립군에게 열렬한 감동적인 Inscription(현사)이 새겨져 있다. 'Naked and Starving As They Are We cannot Enough Admire the Incomparable Patience and Fidelity of the Soldiery.'

2. Muhlenberg Brigade Huts: 펜실베이니아( Trappe, PA) 출신의 루터란 교단 목사였던 Peter Muhlenberg 는 University of Penn. 의 전신이었던 Academy of Philadelphia를 졸업하고 영국군 제60연대와 독일군 기병연대 등에서 복무한 적이 있으며 후에 Anglican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776년 워싱턴 장군으로부터 Virginia 제8연대장(대령)으로 임명을 받았으며 1777년 12월에는 Brigadier General(준장)으로 워싱턴 휘하에서 Valley Forge의 겨울을 나기 위해 사진(2)과 같은 간이 막사를 지어 장병들과 함께 휴관을 견디며 훈련을 했다. 독립 후에는 펜주 출신 연방하원과 상원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활발히 했다.

3. General Wayne Statute: General 'Mad' Anthony Wayne (Chester County, PA 출신) 장군의 동상으로 자신의 고향집인 Waynesborough, PA. 남서쪽을 향해서 있는데 park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장소이다

4. Washington's Headquarters: 워싱턴 총사령관이 주로 사용하던 지휘 본부로 이층으로 된 석조건물이다. 이곳에서 Continential Congress 와 연락하며 비서



실장이던 Alexander Hamilton 대령과 그의 동료 장교들이 합숙하며 워싱턴 장군을 보좌하던 곳이다 영부인 Martha Washington이 Mt. Vernon, Virginia에서 가끔 장군을 만나러 오면 며칠씩 묵어가며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음식과 간단한 파티를 베풀던 장소이다.

5. Artillery Park 공원 안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 그당시 Henry Knox 장군 휘하의 포병연대가 6개월간 훈련을 받고 Benjamin Franklin 의 주선으로 불란서에서 밀수한 화약과 대포알들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 해 여름에 Continental Army가 세계 최강의 영국군에 대한 대반격 작전에서 승리하는 전기를 마련했었다.

6. Washington Memorial Chapel: 독립군이 떠난지 125주년 되던 1903년에 착공되어 1917년에 완성된 아름다운 고딕 건물로 지금 현재도 미사가 드려지는 Episcopal 교회로 Valley Forge 국립공원에 속한 건물은 아니다. 102 ft에 이르는 National Patriot Bell Tower에는 Liberty Bell 을 본판 half 사이즈의 Justice Bell을 포함, 58개의 종들이 매달려 있다.

P.S. :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한지 240여년이 지났지만 역사유지업과 동영상을 보여주는 Auditorium 등, 여러곳에서 아직도 역사의 생생한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 광활하고 (약 430만평)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 우리 동문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추억을 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My Story &

*My Story &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일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 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세일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 이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일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학교에서 보내고,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문님의 story와 과거, 현재 사진을 news@snuuaa.org로 보내주세요.

(담당: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 Your History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4. My Favorite Things: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한효동 (CA, 공대 58)

1. 학보병으로 1년 6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1964년 공과대학 건축과 졸업후 그때 마침 고국으로 돌아오신 건축가 Kyu Lee (영친왕 아들 이구씨) 밑에서 근무하다가 1967년에 UCLA 대학원으로 유학와서 석사학위를 받고 1969년에 졸업하면서 County of Los Angeles Engineering Dept.에 취직하여 7년 근무한 후 독립하여 30여년간 자체 건축회사 운영하다 2015년에 은퇴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2. 카톨릭 신앙인으로 내세가 있는것을 믿지만 나의 삶의 철학은 하루 하루를 충실하게 마치 Golf Shot을 한 Stroke 한 Stroke 최선을 다해 치듯이 내 삶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다. 마사우생 같이 세월의 흐름에 거슬리지 않고 순응하며 살고싶다.
3.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내려다본 Los Angeles는 세상에 이런 광대한 도시가 있었나하고 정말 나를 놀라게 했으며 이 넓은 대륙에서 사는 사람과 환경이 Scale이 크다는 것을 느꼈으며 만일 내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모든면에서 우물만 개구리같은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4.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영화 클럽에 나가서 Classic Movie를 보기 좋아하며 취미로는 매일 Golf를 즐기며 동문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5. 요즘 골프장마다 Senior들을 위한 Club Program이 있어서 새벽 7시에 9 hole 한번 돌고 Club에서 주는 Breakfast 먹고 소화삼아 1 Bucket Practice Ball로 연습하고 나서 24hr Fitness Club가서 수영하면서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6. 다시 서울대생으로 돌아간다면 대학 Campus생활을 미국대학 Campus분위기는 좀더 자유롭고 즐기는 대학생활을 하고싶다. 우리가 다니던 공대는 그 당시 너무 떨어져있어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강의끝나고 집에 가는 기차시간 때문에 Campus에 머물러 있을 시간없이 집에 가기 바빴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내 미래에 꼭 하고 싶은 것은 세계를 World Cruise를 타고 일주하는 것이다.
7. 현재 편집위원들이 훌륭한 동창회보를 만들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문 중에 만화가가가 있어서 Humorous한 삽화가나 만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My story & your history*는 모든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동문이 있으면 news@snuuaa.org로 연락주세요.



서병선 (NY, 음대 65)

1. 1969년 시카고로 처음와서 6개월을 살고, 1970년에 그 당시 최고령자로 32살에 줄리어드 입학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 뉴욕에서 활동하며 뉴욕 예술가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교포사회에서 연주활동을 통해 자선음악회와 탈북난민돕기 음악회를 매년 열고 있다.
  2. 고등학교 졸업 후 야학을 했던 적이 있다. 어린아이를 좋아했던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농사일을 하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야학당에 모든 정열을 바치고 일했던 적이 있다. 그 후 서울대에 입학해 성악을 공부하고 미국과 이태리에서 예술가곡을 공부한 후 항상 인류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세계평화에 음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3. 미국에서의 첫 인상은 너무 못살던 한국과는 달리 광대함에 놀랐고, 가져온 100 불의 절반을 지하실 방앗으로 냈다. 도착 후 3일 만에 웨라톤 호텔에 점시담기로 취직을 했다. 영어도 모르지만, 일단 일을 한번 달라고 하고 시작한 첫날, 집에 돌아오니 너무 힘이 들어 짐을 삼킬 수조차도 없이 힘이 들었다. 일주일 일한 후 주급으로 힘들게 마련해서 들고 온 100불보다 더 많은 110불을 받았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경기가 최고로 좋았고, 그저 조금만 먹고 버리는 음식들을 보면서 못하는 한국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 미국에서 놀란 사실 중 하나는 입시에 부정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천막을 쳐놓고 대학입시를 치르는 한국은 누구의 제자이고 하면서, 합격여부가 미리 정해지고 시험보는 반면에 미국은 5명의 시험관이 공정하게 듣고 판단하면서 그 학생이 가진 역량과 포텐셜을 평가해 학생을 선별하는게 인상 깊었다. 줄리어드 입학 시험관이 내 소리를 들은 후 따라 나와서 좋은 소리라고 격려를 해준 것은 한국 교수들의 위엄있는 권위와는

- 너무나 틀려서 크게 감동했었다.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음악가로서 그냥 편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으리라. 뻥으로 돈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
4. 특별히 가곡을 좋아한다. 서정성이 담긴 우아하고 품위있는 스페인 민요도 좋아하고 이태리 가곡을 좋아한다. 엘로우스톤, 알버트 슈바이처의 생애, 톨스토이의 책과 석가의 생애 등.
  5. 건강관리 비법은 줄리어드 다니면서 뉴욕의 택시운전사로 일할 때 택시유니온의 건강검진 피검사로 당뇨가 있음을 34살에 알았다. 그 이후로 당뇨관리를 하면서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꾸준한 운동으로 다른 합병증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특별히 집 근처의 Fort Tryon Park에서 일주일에 3번 Volunteer로 오랫동안 봉사하며 자연을 즐기면서 운동을 겸하고 있다
  6. 다시 서울대생으로 돌아간다면 지성과 사랑이 핵심인 가곡을 좀더 깊이있게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한다. 그 당시 오페라에 너무 치중되어 보낸 시간이 아깝다. 특별히 가곡과 같이 더욱 아름답게 연주되어야 할 수 있는 악기를 알고싶다. 개인적으로 가곡과 바이올린이 가장 어울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Bucket list는 오페라의 해독을 알리는 것이다. 나는 1986년부터 오페라 해독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왜 같은 유럽 문화권인 독일, 불란서, 영국 등의 나라가 지성적인 반면 이태리는 마피아같은 조직이 발전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비교해본 결과 다른 나라의 가곡 중심의 음악과는 달리 이태리는 오페라가 발달하고, 오페라가 갖고 있는 격정적인 요소들이 고음으로 표출되어 통쾌함을 주는 자극적 쾌락이 정신문화화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추악한 가사들이 고음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발생됨으로 듣는 청중이 박수 갈채를 보내며 후련함을 느끼며 악을 즐기게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 전 미주에 배포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미주동창회보라 생각한다. 서울대의 우수한 두뇌들이 모교의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와 인류정신회복을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



차환(CA, 사대 54)

1. 1958년 사대 생물과 졸, 60년 석사 1966년 이학박사. 1976년 유신정권때 동국대 교수시절 해직교수가 되어, 쓰라린 슬픔을 맛봄. 이후 미국정착. UCLA대학원 Post Doctoral 과정 3년 이수. UCLA에서 22년간 연구생활.
- 책쓰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서 2013년 최다저서 (250권) 최다학술 논문(180편)으로 한국기록원에 등재되어 2013년 10월 7일에 국회에서 인증식을 가졌음. 고맙게도 서울대 동기동창들이 참석했는데 50년만에 만나서인지 한명도 알아보지 못해 식이 끝난 후 되게 당한 결과 다음날 푸짐하게 식사대접하고 두손으로 살짝 빌어서 동창들의 화를 풀어주었음.
2. 우리집 가훈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임. 남북분단으로 한국의 식물학자들이 북한에 갈 수 없기에 6번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5대 명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의 식물생태를 조사해 각각의 저서를 출판하였음. 북한 자주간다고 총복 좌파 소리까지 듣고 있음.
- 북한의 지리, 역사를 기술한 20권 시리즈로 발행된 조선향토 대백과사전에서 농업, 생물 분야를 감수했음. 또한 동포권을 위한 끈질긴 요구로 참정권과 복수국적을 성사시킨. 독도, 대마도, 간도 영유권 주장 집필 6권.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기에 통일을 위해 이곳 동포들의 뭇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도 많음.
3. Hawaii에 도착해서 첫 인상은 이곳 미국은 땅도 넓고 식물도 크고 사람도 크구나. 과일 열매도 많고 등등. 유신정권때 해직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물론 한국에서 살았을테고, 지금쯤 책은 더 집필했을 것이고 (학생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학술논문의 질은 더 낮을 테고. 대학에서 확장정도 하다가 지금은 비실

- 비실할 것이고 이곳에서 자리 잘 잡고 있는 2남 1녀도 이곳보다 경쟁이 심하고 심한 한국에서라면 비실거릴 수도 있을 것임. 30년만에 명예가 회복되고 퇴직금 받아 장학재단에 몸통을 불려놓은 재미도 못보았을테고.
4.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독일인의 첫사랑 (처음 읽은 소설이고 특히 대학원 입시과목인 독일어 때문에 읽게 되었지만).
- 음식: 가난해서 보리밥만 먹었고 소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기에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단 보리밥은 제외) 맛있게 참 참.
- 사람: 은사님들 (김준민, 김길환, 이영노, Wallace 박사님들)
- 장소: 북한 5대명산인 칠보산 (너무 오랫동안 가 보고싶어 하다가 답사할 수 있었기에)
5. Relax운동 (1시간), 매일걷기 (1시간) 특별히 아직까지는 몸에 이상이 없어서 복용하는 약 없음.
- 원래 시골고등학교 씨름선수였기에 80세가 넘자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고 해서 책을 300권 집필할 때까지는 오지 말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갔음. 고로 299권까지만 쓰고 300권은 안 쓰기로 했음.
6. 조국의 통일운동에 앞장 서고 싶음.
  7. 머리좋은 동창들의 지혜를 짜보세요. 필자는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머리가 텅 비어있기에 별 Idea가 없음.
- 그러나 꼭 한마디 하라고 하면 조국의 정치가 풀이 아니니 글이나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각성하도록 외쳐보았으면. 또한 조국의 통일 문제도 답답하니 우리 각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보고 우리의 의견을 발표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김종원 (NY, 사대 62)

1. 저는 사범대학 가정과를 1962년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1년간 가정과 교사로 일하다가 1963년에 사범대학 은사님 (추정일 교수)의 추천으로 Full Scholarship을 받아 The Women's College of Georgia, Milledgeville, GA에 유학을 왔습니다.
- 학사편입으로 1년 후 B.A.를 받은 후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Blacksburg, VA에서 Foods and Nutrition으로 M.S.를 받았습니니다.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하였고, 뉴욕시로 옮겨서 실험실에서 몇년간 연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 처음 Campus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모두 명랑해 보였고, 굽높은 구두를 신은 학생은 한명도 없이 자유스럽고 간편한 복장들을 하고 잔디위에 편안히들 누워서 즐기는 것들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Hi!"를 하고 "Can I help you?" 라고 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최근에 미국장로교회 총회장을 지낸 이승만 목사님의 자서전 '기도속에서 만나자'를 감명깊게 읽었고 음악은 무슨 음악이든지 다 좋아하지만, 특히 Schubert의 곡들을 좋아하고 음식은 아무것이나 잘 먹고 친구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행도 열대, 한대 구분없이 다 가 보기를 원합니다.
  4. 특별한 건강비결은 없고 음식은 balanced foods를 의식적으로 매일 먹으려 하고 친구들과 같이 잘 웃고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지내서 Endorphins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5.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배낭을 메고 걷고 타고 하면서 방학때마다 며칠씩 여행하고 싶습니다. Bucket List에는 아직 더 가보고 싶은 데가 몇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6.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배낭을 메고 걷고 타고 하면서 방학때마다 며칠씩 여행하고 싶습니다. Bucket List에는 아직 더 가보고 싶은 데가 몇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7. 미국에 있는 모든 동문들이 미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미주동창회보에 한번씩 투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 : 춘계 야유회



건강 기체조로 친목 다졌다

조지아지부(회장 강창석, 의대 73)가 춘계 야유회를 지난 15일 와인더시 포트 야고 주립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바비큐 파티를 시작으로 본교 대학원 동문인 이경훈 서울국제여행사 대표가 건강 기체조 강좌를 30분간 진행했다.

강창석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한다. 마음껏 자연과 함께 친목을 나누시기 바란다"면서 "동문회가 지역사회에 더욱 참여하고 뜻깊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지아지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포트야고에서 추계 야유회를 개최하며 10월 15일 개교기념일에 맞춰 개교 7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4일 오후 6시에는 송년회가 열릴 예정이다.

테네시 :

낙스빌에서 서울대 동문회모임을 회상하며

어제 지역동문회모임에서, 임원들이 서울대 미주동창회보에 실릴 글을 써 달라고 부탁하기에 지난 일들을 회상해서 기고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동문들 중 여기에서 오래 살아온 까닭도 있었다.

서울대 동문인 남편(사대 53)이 1970년에 이곳 대학교에 부임해 왔을 때에는, 한 인 대학원 학생들이 몇 있었을 뿐, 한인교수나 일반 한인들이 많지 않았다. 낙스빌에서 25마일 떨어진 Oak Ridge에는 국립연구소에 근무하는 네명의 과학자 가족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 지역의 한인 사회가 너무 작아서, 지금과 달리 한국 식당이나 식품상점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당분간 남편이 혼자 한인교수로 있다가 1978년에 김근하 교수가 공대에 부임해 와서 둘이 되었는데, 그들은 2000년 초에 은퇴하고 현재에는 10여명의 젊은 한인 교수들이 여러 전공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 중에는 몇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있어서, 공대의 김경덕 교수가 주동이 되어 Oak Ridge국립연구소에 근무하는 동문들과 합심하여 미주동창회회 가입하여 정식으로 Tennessee지역동문회를 조직하였고, 그분들이 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우리가 1970년에 이곳에 왔을 때에는 동문들의 수가 적어서, 동문회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차츰 한인 인구가 늘고 동문들도 많아져서 1980년 초에 동문들이 모여 동창회를 조직하고, 우리들이 학번차례로 (최상국, 전광우, 김명실, 신정승, 김주택, 박종근, 백순, 추병문, ...) 회장직을 1년씩 맡으면서 동문회를 지속했다. 그중, 백순박사는 후에 워싱턴에 이주하여, 미주동창회보 주필로 오래 수고했다. 그래도 아직 동문들의 수가 적어서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을 정도였다.

Dr. 신정승(의대 54)이 회장일때에는, 내가 1990년에 펴낸 시집 출판을 축하하려고, 차비를 드려서 동문회와 겸하여 출판기념회를 갖게 하여 나는 두고 두고 감사히 생각한다. 아쉽게도, Dr. 신은 고인이 되어서 이런 치하도 이제 소용이 없다. Dr. 신

룩키마운틴스

지난 14일 토요일에 몇분의 동문들이 모여 Meadow Hill Golf Course 에서 golf 를 즐겼으며, 저녁 6시에는 신라식당에서 우리 동문들이 즐거운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은 류광현 (58 학번, left 1st), 이대식 (64 학번, left 4th), 정길택 (54학번 left 3rd & 5th) 부부, 한숙영 (70 학번 left 6th) 동문 그리고 저희 부부였습니다.

정길택 선배님은 저희 동문회 모임의 제일 선배되시는 분으로 수의대 교수로 은퇴하셨지만 자영업을 운영하시며, 음악을 전공하셨던 사모님과 함께 등산을 즐기시는 모습은 젊은 후배들이 부럽게 느낄 정도입니다. 사실에 근거를 둔 '통일 교향곡' 이란 소설을 영문과 한글로 집필하신 류광현 선배님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에 가셔서 탈북자들을 가르치셨으나 급변 여름은 집에서 쉬시게 되어 7년만에 골프를 치셨는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수로 은퇴하신 이대식 동문은 부인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우리 동문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한숙영 동문께서는 텐버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로 일하시는 따님을 돌기위해 손주를 보여주러 미시간에서 오셨는데 이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을 언급하셨고 우리 동문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2016년 우리 지역 동창회비를 정길택, 이대식, 한숙영 동문들께서 내주셔서 제가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 신문들을 전하드려 주위의 동문들께 보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7월 9일 토요일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동문 이상준 (공대64) 교수 부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준 동문은 텐버 공항 설계자와 O' Hare 공항 설계사를 합하여 consortium을 만들어 인천공항을 설계한 후에 한국 대통령의 표창을 받고 미국의 건축설계소를 팔려고 한국에 가서 대학에서 강의하며 건축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상준 동문이 왔을때 관심이 있는 분들 누구나 저녁을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설계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게 준비하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글: 송유준 회장)

의 의대 동기이며 이제는 고인이 된 Dr. 김주택은 45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았어도, 동문회모임에는 늘 참석하였다. 그리고, 110 마일 떨어진 Kingsport에 살던 이문상(공대 61) 동문은 이사가기 전 동창회모임에 늘 참석하였고, 그곳에 사는 서갑식(공대 70) 동문부부는 지금도 모임에 온다. Dr. 서는, 작년에 Tennessee동문회지부의 대표로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에도 다녀 온 분이다. 전에 몇해 동안, 골퍼의 수가 늘어서 연세대동창들과 우승패를 두고 골프경쟁을 가져서, 재미있게 지낸 일도 있었다.

그렇게, 동창들의 모임이 계속된 것은 동문들의 지극한 정성이 있어서였다. 새로 오가는 동문들의 수가 많았는데, 한 때는 동문들의 수가 줄어서 동창회가 중단되는 위기가 있었는데, 우양구(법대 70) 사장이 소수의 동문이 모였을 때에도 모임을 계속 이끌어 준 것을 잊을 수가 없다.

1982년에는, 이곳에서 세계산업박람회개 열려. 아직 한국이 지역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그 때에, 우리 동문들이 주동이 되어서, 지역의 한인회를 조직하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많이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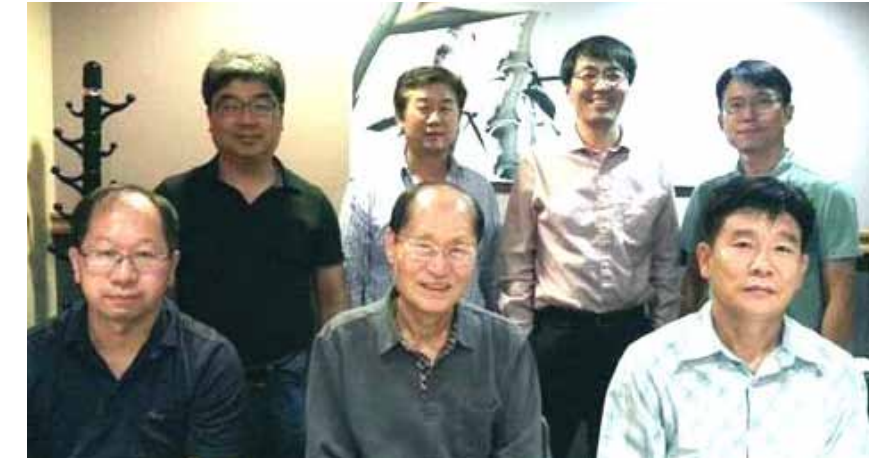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꿈이 많았던 젊은 시절을 같은 이름의 대학교에서 지낸 것은 아주 소중한 추억이다. 서울을 떠난지 오래지만, 멀리서나마 모교인 서울대학교가 계속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식과 지성으로부터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인품으로도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세상에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

김명실 (사대 53) (사진: 5월 춘계모임에서)

샌디에고 : 이사회

5월11일 부가에서 상반기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다음의 동문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임춘수(의대57), 심상철(공대81), 김주성(농대83), 임용갑(공대84), 최흥수(자연대87), 이정석(공대87), 오중호(공대90)

최흥수 회장이 올해 지금까지 있었던 동문회 행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



뉴잉글랜드 : 이사회 및 총회

뉴잉글랜드 지부 동창회는 5월 21일 (토) 12시부터 액튼 클럽하우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화창한 날씨를 맞아 52학번부터 86 학번까지 30여명의 동문들 및 가족들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사업 보고 및 재무 보고, 회칙 수정, 차기 회장 인준이 이루어졌고, NE 한인커뮤니티 전체대상으로 선발한 2016년도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3명의 대학생들과 2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 (사진)에게 각각 \$1,000씩이 수여되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Gina Kim (Tufts Univ.), Irene Hong (Les-

ley Univ.), 정현진 (Univ. of Minnesota), 이민희 (Westborough High School 졸업, Tufts Univ. 진학 예정), 그리고 조민성 (Lexington High School 졸업, Cornell Univ. 진학 예정)이다.

지난 한 해동안 수고한 이의인 회장이 이임하고 정태영 동문(문리대 71)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푸짐하게 준비된 식사를 맛있게 나누는 후 이어진 오락시간에는 노래 제목 맞추기 퀴즈, dart game 등의 다양한 게임과 상품으로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누었으며 끝으로 최근까지 한국 정치계에서 활동하였던 정태영 신임 회장의 "한국

의 정치현황"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총회 전에 모인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이 처리되었고 윤상대 총동창회 차기 회장께서 내년부터 시작될 총동창회에 대한 구상과 정책 사항들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보고를 하였고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동창회 정보 및 문의 사항은 동창회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snuane/>를 참조하면 된다. 이의인 회장(공대 68)

필라델피아 : 골프대회

필라동창회 (회장 전방남, 상대 73)가 5월 12일에 필라델피아 근교에 위치한 Center Square Golf Club에서 2016년 춘계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동문 친목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70도가 넘는 화창한 날씨속에 총 24분의 동문들과 배우자께서 참가하여 성황리에 즐거운 rounding을 가졌는데, 이 대회를 위해 전임회장인 한중희 (공대 80) 동문이 대회준비/진행위원장으로 수고하였습니다.

Champion trophy는 신상재 동문 (수의대 59)이 차지하였고, 2등은 류용진 동문 (상대 59)이, 3등은 제갈은 동문 (문리대 59), 민홍식 동문 (수의대 60), 전무식 동문 (수의대 61) 이 공동 입상하였습니다. 근접상은 강준철 동문 (사범대 59)이, 장타상은 김한중 동문 (공대 56)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Defending Champion이신 류



용진 동문이 순회트로피에 이름을 새기고 새 챔피언에게 물려주었는데, 새 챔피언들의 이름이 계속 새겨지게 됩니다.

여자부 champion은 Mrs. 전상일 (상대 73), 2등은 Mrs. 전희근 (의대 54), 3등은 Mrs. 이규호 (공대 56), 아차상은 Mrs. 이만택 (의대 52)께서 차지하였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공대 47학번이신 서재진 동문께서 올해도 참가하여 노익장을 과시하시고, 또 \$300 기부도 하셨습니다. 손재욱 미주동창회장 (\$300)과 류용진 (\$200) 작년 champion도 필라골프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donation 해주셨습니다.

저녁과 시상식을 Blue Bell의 아리수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가진 후 2016년 가을 골프대회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글: 전방남 (상대 73), 사진: 한중희(공대 80)



워싱턴 DC : 듀엣전



사진 설명: 전시회 개막 오프닝 리셉션에서의 유수자(오른쪽)동문과 박은희 동문(왼쪽) 유수자(미대64) 동문의 '돌고래잡이 여인들'(사진 좌)을 포함한 조

중견 서양화가 겸 조각가인 유수자(미대64) 동문과 서양화가 박은희(미대68)동문이 꾸미는 '듀엣 쇼'가 지난 14일 비엔나 소재 MK갤러리(대표 김미영)에서 개막했다.

내달 2일까지 계속될 작품전은 유수자(미대64) 동문의 '돌고래잡이 여인들'(사진 좌)을 포함한 조



각 5점과 페인팅 6점, 박은희 동문의 '듀엣' '빛의 반사'(사진 우) '카운트 포인트 VII' 등 반추상화 페인팅 6점 등, 인생과 자연의 조화로우며 추구한 작품 총 17점의 근작으로 꾸며졌다.

유수자 동문은 작가와의 대화시간에 자신의 조각 작품에 대해 "이 세상 여성들의 고단한 삶의 여정과 원



시적인 생명력을 여성 조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유 동문은 모교 미대와 타우스데 미술대학원 졸업 후 조각과 서양화를 아우르는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7회의 개인전과 100여회가 넘는 그룹전에 참가했다. 박은희 동문은 모교 미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와 오하이오 라이트 스테이트에서 판화와 유화를 공부했으며 워싱턴 한미미술가협회, 'Waverly Street Gallery' 멤버로 활동 중이며 지난 10 월에는 동 갤러리에서 한달동안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703)734-7777

뉴욕 : 골프 대회



5월 21일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춘계 골프 대회'가 40여명의 동문들과 게스트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 근교 Clearview Park Golf Course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동문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뜻깊은 행사의 취지에 동참함으로써 대회를 빛나게 했다. 이

날 행사는 많은 동문들의 열성으로 2만2천여불의 장학기금이 모금되는 성공적인 동창회 행사가 되었다.

메달리스트는 77타를 기록한 조환환(지대 65) 동문이 차지하였고, 남자 1등 김광수(공대 72), 남자 2등에

드워드강(사대 60), 남자 3등 김영만(상대 59), 여자 1등 Mrs. 송용길, 여자 2등 김유순(간호 64), 롱기스트 앤 손영철(공대 68), 근접상은 최한용(농대 58), 김우영(상대 60) 동문이 차지했다.

대회를 마친 후, 시상식은 근처 금강산 한식당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번 장학기금 모금 행사에 기부금을 후원한 동문 명단이다.

- 강교숙(간호 73), 강에드(사대 60), 김문경(약대 61), 김승호(공대 71), 김영만(상대 59), 김유순(간호 64), 김창수(약대 64), 손경택(농대 57), 손영철(공대 68), 송용길(대원 69), 송학린(법대 59), 신용남(농대 70), 이대영(문리 64), 이수호(대원 69), 이준형(공대 48), 최철용(농대 57), 최한용(농대 58).

- 기부금 약정 동문: 광선섭(공대 61), 김종율(사대 51), 노용면(의대 49), 민준기(공대 59), 성기호(약대 57), 오인석(법대 58), 윤정옥(약대 50), 이대연(약대 65), 이만택(의대 58), 정인식(상대 58), 최수용(상대 55), 추재욱(의대 57)

<김원영 편집위원>

뉴욕 : 미술전



뉴욕지역 미대 동문회(회장 권문웅)가 격년제로 개최하며 올해 7번째 맞이한 '2016 동문 전시회'의 리셉션 행사가 5월 28일 뉴저지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많은

동문과 친지가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80대 원로 동문과 30대 초반 동문 등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지역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18명의 동문이 출품하여 50년의 격차를 아우르는 선후배간의 뜻깊은 합동 전시회가 되었다.

민준기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장, 정인식 골든 클럽 회장 등 많은 동문이 축하차 방문하여 자리를 빛냈다.

뉴욕지역 미대 동문회는 '동문 전시회'를 통해 동문들의 작품을 널리 소개하여 동포 사회 및 미 주류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동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광현(57), 임종식(57), 김인형(59), 이형순(60), 장수영(70), 조경희(가정대72), 김미경(75), 이미령(79), 김봉중(84), 임경선(90), 이보경(91), 한수진(91), 고태화(92), 김현진(93), 김현정(94), 김태동(94), 임기영(94), 유주영(04).

<김원영 편집위원>

남가주 : 기금모금 작품 전시 및 경매



신동인 신혜자 김경애 김구자 정동현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김병연)와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남가주 미술대학 동창회(회장: 박영국, 미대 66)가 주관하여 총동창회 및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작품전이 5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PARKVIEW Gallery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미대 출신 작가로서 한국, 미국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망있는 작가들인 강영일(74), 김경애(83), 김구자(61), 박다애(73), 박영구(85), 박혜숙(74), 손남수(60), 신동인(61), 신정연(61), 신혜자(61), 윤태자(62), 정동현(67), 한석란(71), 현해명(61)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동문과 친지 등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 갔다.

사말에서 "남가주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이러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동문 뿐 아니라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림을 출품해 주신 박영국 미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경매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미대 동문 작품 29점과 소장품 5점이 출품되었는데, 그 중에서 미대 동문 작품 7점과 소장품 3점, 총 10점이 판매되었다.

김구자 동문은 "Cosmic Fantasia #1" 작품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것, 들리는 것보다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모든 것 들을 나의 상상의 세계로 초대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영감을 주고 "천구의 음악", "우주 환상곡", "별들의 탄생" 등으로 화답 한다."고 설명한다. 정동현 동문은 "Companion" 작품을 "우리 모두 누군가가 필요하

다. 같은 길을 갈 수도 있고 귀 기울여 주는, 손을 내밀어 주는 누군가 하고..."라고 말했다. 신혜자 동문은 "In Perfect Peace" 작품에서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에 창조주의 손길로 가득 차, 찬란하고 경이로우며 그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 거기엔 영원한 그의 통치가 있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빛과 생명, 권세와 영광의 임제가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희열과 아픔도 선을 이루어 가며 평강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린다." 라고 설명했다.

이날의 총 판매액은 \$13,000이 넘는다. 이 행사를 위하여 미대 동문들 그림 수거 및 정리 들을 한석란(서기, 미대 71) 동문이 수고하였고, 그 외 많은 임원들이 수고하였다. 이런 행사가 종종 있어서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홍선례 편집위원, 음대 70>



사진 설명: 좌로부터 김병연 총동창회장, 박영국 미대회장, 이학진 행사위원장 모습, 행사 참여자들 모습



남가주 : 아우회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김병연)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하여 7일(토) Crystal Springs Picnic Area(Griffith Park)에서 춘계 가족아우회 행사가 있었다. 김병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식사와 게임 들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하고 말했다. 서울대 산악동우회(대장: 김동근, 공대 60)도 오전에 Griffith & Hollywood Mt. 등정을 끝내고 본 아우회

과 이명일(약대 72) 동문의 감미로운 팝송과 다 함께 부르는 심어롱이 있었다. 게임으로는 피구대회, 제기차기, 훌라후프 돌리기, 과녁 맞추기 등 다채로운 놀이를 했는데,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피구 대회 : 우승 김이진, 김서진, 김해진(김영주 <수의대88> 딸) 제기차기 : 남자부---1등 김영주(수의대 88), 2등 박인창(농대 65), 3등 이상호(농대 80),

과녁 맞추기 : 1등 유혜연(음대 79), 김기형(상대 75), 2등 권순영(간호대), 3등 Mrs. 홍성선(약대 72) 등이다.

특히 과녁맞추기에서 유혜연 동문은 거의 한 가운데를 적중하여 모두를 감탄케 했다. 피구대회에서는 김영혜(문리대 86) 동문이 공을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스꽝스런 표정을 지어 주위의 동문들이 박장대소하였다.

이어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1등 상에는 김양희(음대 88) 동문이 추첨되어, 주방셋트를 받았다. 그 외 푸짐하게 준비한 선물이 참석자들에게 거의 1,2개씩 돌아 가게 되어 모두들 기뻐했다. 또한 이날 처음 동창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30여명 있었는데, 모두들 동창회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다음 행사에도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푸르



에 같이 합류하는 등 170여명의 선후배 동문들과 어린이 등 가족들은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바베큐 갈비 등의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장려상 최진석(법대 64), 차종환(사대 54), 고정범(법대 79) 여자부---공동 우승 Mrs. 민일기(약대 69), 오문희, 유혜숙 훌라후프 : 김이진, 김해진(김영주 딸)

른 나무들과 풀밭에서 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동문과 가족들은 유쾌한 주말을 보냈고 다음 모임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홍선례 편집위원, 음대 70>

이어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고정범(법대 79) 동문



남가주 : 강영일 초대전

‘삶의 흔적’



남가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강영일(미대74) 동문의 초대전이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샌버나디노에 위치한 문화공간 예술사랑(15551 Cajon Blvd, San Bernadino 909-576-5773)에서 열리고 있다.

모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캘스테이트 노스리지에서 회화를, 아주사 피사픽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강영일 동문은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과 그룹전을 연 연륜있는 유명화가이다.

‘극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겪은 작가의 체험을 나무에 은유적으로 대입

한 추상 작품 전시회이다. 거친 비바람과 모진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끝끝내 생존하며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의 삶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한 결과물이다. 관화기법으로 다양한 색의 층을 만든 극적 표현 방식으로 겹겹이 쌓인 작가의 삶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영일 동문은 “이번 전시는 십여년 전부터 그동안 작업해 온



작품들과 지난 일년 반 전에 개인전을 가진 후로 변화된 최근의 작품들과 함께 전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홍선례 편집위원, 음대 70〉

[음악]

오페라 산책

제2화: 오페라가 뭐길래



장중복 (의대 58)

오페라는 원래 일부 특권층에서만 즐겨오던 것인데 대중화가 많이 되었다. 이제는 영화관에서도 일류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을 동시에 중계를 제법 해 주기 때문에 대형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다. 대중화가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동영상 디스크(DVD)와 유튜브(YouTube)와 자막(subtitle)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로 불러도 뭐

라고 하는지 잘 알아 들을 수 없겠는데, 대개가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로 부르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서덜랜드(Joan Sutherland) 같은 가수는 목소리에 비중을 더 두기 때문에 이태리 사람조차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

자막이 나오면서부터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훌륭한 아리아를 멜로디 뿐만 아니라 가사를 동시에 읽으며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자막을 쓰기 시작할 때 일부에서는 반대하기도 했다. 아래의 공작 부인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던, 오페라를 잘 안다고 껌적대는 스납(snob)들이었다. 어느 공작 부인이 처음으로 오가슴에 올라서 너무 행복해졌다. 공작한테 “이것이 우리 성안에 사는 상것들이 ‘썸한다’ 는 바로 그것이지요?” 하고 물었다. 공작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공작 부인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상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즐기다니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는 즐기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립시다” 했단다.

중세기에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이 일상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자 교회측에서 격분했던 경우와 같다. 자기네만의 특권을 빼앗긴다는 피해 망상증이다. 오페라는 환담 하다고 들어 보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 만나자마자 사랑을 하지 않나, 칼이 찔리면 금세 죽지 않고 건강한 사람 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나, 여러명

이 합창을 해도 서로 다른 가사로 부르지를 않나, “점인 가경이로소이다.”

반면에 오페라를 광적으로 사랑하는 분들도 많다. 어떤 사람이 파바로티(Pavarotti)가 특별 출연을 한다고 해서 표를 겨우 사 가지고 들어 갔다. 찬 발코니 석이라 가수들이 겨우 보일 지경인데, 무대 바로 앞 좌석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휴게 시간에 그리로 가서 옆에 앉아 있는 노인 신사한테 “이 좋은 자리가 비어 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하고 말을 걸었다. 그 신사 왈 “제 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대답을 받아서 “정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친구나 가족한테 주시지도 않으셨습니까?” 신사가 대답하기를 “그 분들이 지금 모두 장례식에 가 있습니다.”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좀 들어 보겠다. 뉴욕에 피어스(Joe Pierce)라는 노인이 있다. 은행가로 있다가 퇴직하고 성악 음반 수집회의 회장으로 있다. 12살에 마리오 란자가 나오는 <위대한 카루소(The Great Caruso)> 영화를 보고 광이 되었다. 현재 6만 장의 음반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2천 페이지가 넘는 오페라 책을 쓴 저자 박종호씨는 오페라 전공의 음악가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이다. 번 돈으로 세계 유수의 오페라 하우스를 돌아다니며 5백 편 이상의 공연을 감상하였다. CD와 DVD가 없는 것이 없다. 보고 듣고 수집하고 쓰는 데 나간 돈과 시간은 천문학적 숫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몇 십년 전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 살 때 오페라를 무척 사랑하는 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바그너(Wagner)의 <니벨룽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레코드 판을 돌린다. 가사(libretto) 책을 펼친다. 독일어 가사는 왼 쪽에, 영어로 번역된 가사는 오른 쪽에 있다.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이 시작된다. 첫째, 음악을 듣고 독일어를 읽으면서 싱크(sync)를 한다. 다시 말해서 듣고 있는 곳을 알아낸다. 둘째, 동시에 영어를 읽고 한글로 번역하면서 뜻을 헤아린다. 셋째, 그러면서 나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오페라



사진: 르누아르(Renoir)의 ‘오페라 박스, 남자는 무대를 안 보고 누구를 보고 있나?’

는 길기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15시간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이 집을 빨리 나올 수 있을까 변명을 찾느라고 음악은 물론 그 분의 명강의가 귀에 들어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아베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 카치니(Caccini, 1551-1618)는 페리(Peri, 1561-1633)와 함께 처음으로 <다프네(Dafne)>와 <우리디체(Euridice)>라는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터니지(Turnage, 1960-)가 <안나 니콜(Anna Nicole)>을 5년 전에 발표할 때까지 약 2만8천 편의 오페라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 중에서 몇 편을 골라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계속)



한하게 웃는 얼굴로 본 동창회 사무실에 들어서는 백정현 (음대 성악66) 동문의 표정에서 3,000 여 마일의 여정을 끝낸 피로보다는 힘찬 기개와 ‘해냈다’ 라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백 동문은 한달 만에 걸쳐 LA 산타모니카에서부터 뉴욕 시티까지의 긴 여정을 홀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다.

주말 휴식 후 필라델피아의 미주총동창회 본부를 찾은 것이다. 손재욱 회장, 이재원 편집위원, 이제니 사무장, 김정현 편집장과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회의실에 둘러앉아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어떻게 이런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요? 남가주 동창회 산하 ‘철벽지(꿀벽지, 물벽지가 아니라)클럽’에 50여명의 회원중 꾸준히 함께 운동을 하는 2-30명의 회원들이 미주 대륙횡단의 꿈을 이야기해오고 있었어요. 작년에 서치원 동문, 양수진 동문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LA 까지 500여 마일을 절경의 태평양 해안을 따라 쿠불꾸불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루트 1 을 주파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에 몇분이 같이들 오자고 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등, 각자 개인 사정 때문에 결국 저 혼자 오게 되었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체력준비를 했나요? 자전거를 타게 된게 15년 전쯤부터인데 그때가 제 나이 55살이었어요. 집사람의 건강관리를 위해 함께 운동을 Tandem Bike (2인승 바이크)로 시작하게 지금까지 계속되었어요.

오는 도중 일기는 괜찮았나요? 비가 오는 경우 두어번 Hitch hiking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혼자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민간이나 아무도 없는 길 중에서 가장 긴 거리가? 다음날 여정을 살펴보고 거리를 잠깐하는데 짧은 경우는 하루에 50마일, 보통은 7, 80마일을 주파합니다. 최대는 120마

일을 달린 날도 있습니다. 평균시속을 15 마일정도로 하면 하루 5-6시간을 달리는 거지요. 아리조나, 뉴멕시코쪽은 자전거가 하이웨이를 달려도 되는데, 그외 보통은 하이웨이에 못들어가니까, 일반 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도로도 Shoulder 로 달려야 하는데, 시골길엔 그런 shoulder 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길 가운데로 달리면 아주 위험하니까요. 지나가는 차라곤 대형 콘테



이너 트레일러들인데, 자전거는 스쳐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휩쓸리게 되어서요.

하이웨이에 잘못 들어간 적도 있는데, 저 앞에 경찰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이드로 빠질려는데, 벽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혼이 난적이 있습니다. 한시간 가량을 숨어있다가 빠져나온 적도 있어요.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오는 도중 마을이 있으면 잠깐 들려 요기를 했지요. 햄버거를 가장 많이 먹은것 같네요. ㅎㅎ. 편의점에서 생수도 챙기고, 숙박은 텐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캠핑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모텔도 이용하고, ‘Warm Shower(WS)’ 라는시설도 이용했습니다. 이 WS 시설은 바이크동호 전국 네트워크 회원 중 자기집을 Shower 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서로 서로 도우며 나누는 거지요. Youth Hostel에 들어간 적도 있는데, 이게 콘테이너 한개씩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어둠 속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어에 쪽지가 있어서 전화해보니 옆쇠가 Doormat 아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을에서도 동떨어진 외진 곳이고,인기척 하나 없는 곳이 되어 조금 으스스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 거길 나와 마을을 찾



아갔지요. 워낙 시골길에 있는 모텔같은데는 또 Bedbug(빈대)들 때문에 방 안에서 텐트를 치고 지퍼로 잠고 잔 적도 있습니다.

용변은? 하하. 어디든지 천지가 다 내 땅인데...(일동 웃음)

한식은 한 번도 먹지 못했나요? 미군 부대가 있는 마을이었는데, 한글권 판이 보여서 들어가 한그릇을 먹었습니다. 맛은 그냥 그렇고..

미리 알았더라면 동창회보를 통해 미주 전체에 알려 지나가는 도중의 각 지부에서 함께 응원도 하고 그랬을텐데 아쉽네요. 이번 여정에 지역 동문들의 성원은요? 오홍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셨어요. 전체비용은 5천불정도

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를 지나면서는 이상강(의대70) 하틀랜드 지부회장님 내외분이 환대를 해 주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동문들에게 권하고 싶은가요? 아닙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그런 여유있는 여정이 아니라, 목표인 뉴욕을 향해 계획대로 열심히 달리는 여정이라, 마음의 여유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같은 여정을 계획하신다면, 힘들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석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체력강화훈련을 해서 출발 마지막 열흘정도는 매일같이 달리는 훈련을 했는데도, 체중이 15 파운드 정도 빠지는 힘든 여정이었어요.

미 대륙횡단을 꿈꾸는 도전자들에게 줄 충고는?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도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힘들지만 새로운 경험, 인생경험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취미로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른 도전해 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미국은 자전거 도로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정말 목숨 걸고 도전한 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진 유럽에서 아름다운 경치, 새로운 경치를 구경하며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아내와 꼭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재원 (사대68)편집위원이 본인도 옛날 자동차로 1주에 걸쳐 횡단을 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는 젊었을 때인데도 참 힘들었는데.. 하신다. 백 동문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KBS ‘젊음의 행진’ PD를 하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박혜옥 (간호69, 남가주동창회 전회장) 동문과 결혼 후 도미. 아들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백 동문의 도전용기에 총동창회의 금일봉과 함께 치하를 드렸다.



“밤새워 청담..느긋함과 편안함,유머있는 화술, 즐거움이 통하는 분, 내 갈길을 굳게 세워주시는 그분, 친근함과 무관심을 적절히 지켜주시는 그분... 우리 흥인표 선배님, 그분이면 물론 가능하다”  
유성모 (미대 82)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도 재림하시면  
직접 뵈고 궁금했던 모든 것을  
여쭙보고 싶네요  
한혜정 (음대 69)

시인, 사회학자, 강연자, 장로  
인품 고상하고 낭만적이나 바른 말은 기필코 하는 사람  
지식은 동서고금 확 트였고 가곡도 아름다운 테너로  
부름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을 지금은 교수 은퇴 후  
집필과 연구생활 하며 가을과 봄사이 유럽에서 같은  
일을 하심  
관계는 30년 가까운 ‘오로지 그 사람’ ㅎ,ㅎ,ㅎ,  
정신적인 사이  
지금은 가끔 ‘필요할 때’ 넓은 바다 편지로 건너뛰며...  
인생에 꼭 필요하고 힘이 되어 고마운 사람, 늘 끝없이  
나를 지켜주니까... K 동문 (문리대 52)

그리움

박윤수 (문리대 48)

그대는 겨울을 지나  
불어오는 봄바람

그대가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마음에 불을 켜고 살아나는 몸짓

아침이 되면 늘 찾던  
안개 속 관악산 약수터를 돌아  
아침 이슬에 폭 젖었던 그대.

고향의 산기슭에서 친구들과 놀던  
시냇물은  
눈 감으면 대낮처럼 보인다.

저는 創作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 중에도 음악 작곡하시는 분들이지요.  
화가든 본 것이 있고 문학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곡가는 無形에서 有形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全無에서 우주물, 인간을, 세상을 만드신  
創造主를 제일 뵈고 싶습니다.  
죽어서 천당 못가면 영원히 못 뵈 분 아닙니까?  
질문 많지요. 창조주 자신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모든 것을 어떻게, 왜 만드셨을까?  
이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야 하는지? 그저 감사만하고 살아야 하는지?  
등등. 장용복 (공대 58)

히틀러 (실은 내 기준으로 타인에게, 주로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상한일을 펼친 모든 사람)  
이유: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당신이 유대인들에게(타인에게)  
한 일들이 진정 옳은 일이라 믿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듣고 싶고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이은미 (자연대 83)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는 것은 많는데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뭉뚱뚱쳐 있어  
파스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박식함과 현안함에  
머뭇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결을 하나 들먹거리며 떠나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슴이 혼噩해지면서  
아련한 그리움에 젖게 하는 사람은 진정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아닐까요?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 만나고 싶은 사람

<질문> '가능하다면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 해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유는요?'

몇달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간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덕혜.(동문 엄경삼씨 아내)  
이름 석자를 쓰고보니 또 마음 저리게 보고싶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진다.  
오래 아팠어도 늘 그렇게 있어줄 줄 알았지...  
왜 그리 바빠 떠났니? 항상 말없이 주위사람들을 챙겨주던  
친구, 엄마, 아내, 선배, 후배, 형제, 이웃...이었던  
착한 그녀가 떠난 자리를 모두 지금쯤 새록새록 생각하며  
보고싶어 하겠지. 이문난 친구처럼, 박은숙 (미대 62)

밤새워 이야기 하고픈 사람-  
오랫동안 보지못하다 만난 옛친구도 아니고  
존경하는 선배와도 아닙니다.  
나는 그여인과 한번쯤 진짜 밤새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0년 가깝게 함께 살아왔지만 반시간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그여인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그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녀의 생각, 마음,  
그여인의 과거의 남자에 대해서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쯤 내 아내라는 그여인과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얘기좀합시다”라고 해도 “나, 바빠,바빠” 할 것이고  
밤새워 어쩌구 했다가는 벼락을 칠겁니다. “아유 크레이지?”  
나는 정말, 진정 내 아내 그여인과 한번쯤은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문용 (미대 61 )

“노자(老子)님,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길 아닌 길(Pathless path)’을 따라서 걷다보니, 道可道 非常道’  
라고 한 내 말을 잊으셨소? 그런데, 당신은 지금 아무일도  
하지 않고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무슨일이요?”  
“無爲而 無不爲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는 것) 라고 해서...저는 지금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Psalm 46:10) 중에 있습니다.”  
“...???”

“If you have faith in, no proof is necessary.  
If you don't, no proof is sufficient!”  
“Understanding others is knowledge (知人者智),  
Understanding yourself is enlightenment (自知者明)  
Those who know do not speak (知者不言),  
Those who speak do not know (言者不知)” 이상봉 (문리 65)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나의 친정아버지이다.  
이유는 내 나이 올해 60이 되는데, 아버지는 내가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온지 7년만에, 환갑을 넘기시고 얼마 되지 않아  
소천하셨다. 내 아버지는 서울대 동문이다.  
고창중학교에서 서울상대를 입학하신 분  
(신탁통치 반대 데모로 졸업은 못하심)으로서  
내가 태어날 때 쯤에는 가장 화려할 수 있는 조건에 계셨다고 한다.  
큰 집 두채에 극장까지 소유하셨다 하니..  
그런데 그 후로 하시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가족을 고생시켰다.  
언젠가 어머니로부터 그 이유는 병역을 피하고자 도망다니다  
잡혀서 머리를 두들겨 맞아서 그 좋은 머리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며 “That makes sense.”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는 지방공무원 생활에서 은퇴하신 후  
또 다른 시작을 하셨다. 벽돌공장을 차려서 벽돌을 찍어내어 집짓는  
사람들에게 팔았다. 콘크리트 화학반응을 검사하는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어찌 이런면이 있으셨나 새삼 놀랐던  
기억이 있다. 양반집 자제로 화잇칼러의 성공을 꿈꾸던 아버지,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로 갈등하시던 아버지,  
신문 지상이나 역사책에서가 아닌 그 시대를 사셨던 분에게서  
직접 그 시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에게 여쭙고 싶은 질문, “어떻게 50대 후반에  
새로운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성숙(가정대 74)





[건강]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 우울증 위험” 직장 다닐 때보다 70% 높아**

**집안 일 간섭 마찰 잦아진 탓\***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는 그렇지 않은 아내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최고 70%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모열 서울대외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이 2006~2012년 고령화연구패널 조사(KIoSA)에 참여한 45세 이상 남녀 5937명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다. 연구팀은 참여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상태를 근무, 자발적 은퇴(정년퇴직 포함), 비자발적 은퇴 등으로 나눠 우울척도검사(CES-D)를 시행했다. 우울척도검사는 응답자에게 10가지 문항(30점 총점)을 주고 응답에 따라 점수를 매겨 10점 이상이면 우울증이 있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발적인 은퇴를 한 남편의 아내는 계속 직장에 다니는 남편의 아내보다 우

울증에 걸릴 확률이 70% 더 높았다. 비자발적 은퇴를 한 남편의 아내도 우울증 위험도가 29% 높았다. 강 연구원은 “직장에서 삶의 대부분을 살아온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 일에 간섭하면서 부부간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참여자들의 재산,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의 변수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정했다니 우울증 위험도는 70%에서 35%까지 절반으로 내려갔다. 강 연구원은 “은퇴 이후 가계 수입의 급감 등 경제적 문제는 그만큼 가족원 전체의 정신,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고 풀이했다. 아내의 은퇴 여부가 남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중앙일보>

미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전 세계 건강식의 생산·소비 동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 시장에서 수년 전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식품 소재가 ‘알로에’다. 우리나라에선 홍삼이 수십 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알로에와 홍삼(인삼)이 비슷하게 많이 팔린다.

알로에는 면역·피부·장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인정받은 식품은 알로에가 유일하다. 특히 암이나 알레르기질환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생약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알로에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다. 가장 주목 받은 것은 대장암 치료 연구였다. 충북대 이종길 교수팀은 쥐에게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주사한 뒤 알로에 추출물(면역다당체)을 먹였더니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40% 억제된 것을 발견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완수(면역학 전공) 교수팀은 알로에가 면역반응을 조절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쥐에게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 주입한 후 알레르기가 생기는 지 관찰했다. 이후 알로에 추출물을 먹이게 했더니 발진 등의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알로에는 1994년 미국 MD앤더슨의대 암연구소에서 피부암 치료 효과를 입증한 뒤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알로에가 자외선으로 파괴된 피부의 면역세포를 수일 내 80% 이상 복구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건강] **다시 주목받는 알로에**

알로에의 효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어떤 성분이 탁월한 면역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집중 연구했다. 그 결과, 알로에의 면역 다당체 중 ‘에이스만난’이라는 물질이 핵심 성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면역력은 인체 내 ‘T세포’가 활성화돼야 유지되는데, 알로에가 다양한 경로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했다.



이미 미국 맥디나엘 교수팀이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1987년)에서도 면역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약 71%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혈당 떨어뜨리고 체지방 줄여 2000년대에는 알로에가 당뇨병·비만, 호흡기 알레르기 등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잇따라 나왔다. 삼육대 약대 김경재 교수는 “알로에가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당뇨병·비만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실제 실험용 쥐에게 알로에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혈당을 크게 감소시켰다. 혈중 인슐린은 당뇨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결과까지 나왔다. 서울대 송옥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중년 여성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운동만, 한 그룹은 운동하면서 알로에 추출물을 복용하게 했더니 알로에를 섭취한 그룹은 체지방 감소는 물론 뱃살의 주범이 되는 중성지방이 23.7% 감소했다.

송 교수는 “알로에가 지방의 산화를 돕고 에너지 소비 센서를 활성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호흡기 알레르기 예방 효과도 있다. 호흡기 알레르기는 외부의 먼지·꽃가루 등이 호흡기로 들어오면서 기침·콧물 등이 생기는 질환이다. 면역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나타나는데, 병의 기전이 워낙 복잡해 현대의학에서도 딱 떨어지는 원인치료를 할 수 없다. 다만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을 처방할 뿐이다.

기존 알레르기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 중 히스타민 하나에만 작용했지만 알로에는 원인 물질 두 가지를 모두 억제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못하게 했다.

<중앙일보>

[광고] **곽상희 동문의 장편소설 “바람의 얼굴” 절찬리 판매 중**

뉴욕의 곽상희 작가가 꿈꾸는 남북 통일의 꿈, 소설 “바람의 얼굴”은 조국이 안고 있는 남북통일의 정신을 주제와 소재로 삼고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작가는 오늘의 정치국면과 문화 세계를 우리 모두의 정서적 능선에 폭우처럼 쏟아놓는다. 소설이란 테두리를 벗어난 차라리 절박한 울음이다. 그러면서도 그 위에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을 놓치지 않는다. 소설가이자 시인으로서 감피감피시를 삼입함으로써 독자의 정서와 감동을 부채질한다. ... (평론가 최선호)

- ◆ 작가 약력
-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과 졸, <현대문학> 등단, 시집 7권, 수필 3권, 소설 장 중 단편, 영문소설 ‘Two Faces’ 등
- 올림포에트리 시인(스페인) UPLI 계관시인, 국내외 여러 시인상 소설상 수상

가격: \$20 / 문의 Tel:646-283-5658  
E-mail:kwaksanghee9@gmail.com



[문학]

영국 중부에 있는 코츠윌즈(Cotswolds)는 런던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 외부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영국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영국 북서부에 있는 ‘호반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연미 탁월 지역’(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인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곳의 중심인 바이베리(Bibury)에 가면 동화책에서 보던 유럽 마을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길 따라 수정처럼 맑은 시내가 흐르고 오리들은 유유히 헤엄치며 푸르디푸른 버드나무는 바람에 산들거린다. 담쟁이넝쿨과 아끼로 덮인 오투막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어디에도 휴지 한 점 찾아 볼 수 없다.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 마을의 알링턴 거리(Arlington Row)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곳이라는데 그럴만해 보인다.

여기서 남쪽으로 한 시간 쯤 떨어진 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영국 유일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이자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바스(Bath)가 있고 북서쪽으로 2시간 거리에는 윌리엄 워즈워드가 호수 가에 핀 ‘1만 송이’의 황금 빛 수선화’를 노래한 ‘호반 지역’이 있다.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렀던 워즈워드는 워즈워드 호텔 옆 작은 교회 묘지에 부인과 누이,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누워 있다. 아름다운 풍광과 글과의 상관관계를 이보다 잘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보다 코츠윌즈를 찾는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여기서 30분 떨어진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Stratford-upon-Avon)이란 시골 마을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지만 영문학도재 이곳을 성지나 다름없다. 영문학의 최고봉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은 곳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1564년 존 셰익스피어와 메리 아든의 4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부유한 지주의 딸이고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으로 한 때 이 마을 시장까지 지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셰익스피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18살 때 자기보다 8살 나이가 많은 앤 해서웨이와 관계를 맺어 임신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

**시인의 고향**

까지 했다. 곧 이어 쌍둥이까지 태어나 셰익스피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다. 그가 왜 20대 중반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어려서부터 연극과 글쓰기에 재능을 보인 그가 큰문에서 자기 꿈을 펼쳐 보려 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흉상

**‘The Moor’s Last Sigh’. 아크로 인문강좌를 듣고**

5월 17일 아크로 인문강좌 김지영 동문(사대 69, 사진)의 ‘무어인의 마지막 한숨’을 들었다.

마침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에 한국인 소설가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 수상자로 발표되어서 40세에 이미 Booker Prize 수상자가 되었던 Salman Rushdie 의 책에 관한 강의 를 듣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또한 한국어로 후련하게 알아듣는 강의는 한국을 떠난지 얼마만인지...!!

스페인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 그라나다에서 남쪽 지중해로 넘어가는 언덕에서 스페인 이슬람 문화의 절정인 알함브라 궁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보암달, 그의 생을 다룬 셀만 루시디의 소설 ‘무어인의 마지막 한숨’이



사진 설명: 좌로부터 김홍목 (문리대 60), 박성연 (가정대 88), 김지영 (사대 69), 홍동식 (법대 65), 허유선 (가정대 83), 백옥자 (음대 71)

다. 마지막으로 왕궁의 바라보는 그에게 무정한 그의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

“That since he had not been able to defend it like a man, he was right in crying for it like a woman.”

그의 한숨과 눈물조차도 가치없이 무시되는 엘 조고이비 (El Zogoybi) 불쌍한 놀이라 불리는 쫓겨가는 주인공과 왕의 왕관을 훔쳐 달아나는 하녀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이다. 강의 내용이 너무 생생해서 혹시 영화로도 나온 게 아닌가 듣는 내내 공감했다. 선배님의 답변은 강의가 생생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명당이다.

강의노트 끝에 붙여져 있는 선배님의 코멘트... 실패한

그 후 20여년 동안 그는 극작가와 배우, 극단주로 활동하며 연극계 종사자로서는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둔다. 그의 명성은 살아생전에도 런던 전역에 울려 퍼졌으며 1603년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며 그의 극단은 ‘왕의 사람들’(King’s Men)로 불리게 된다. 런던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장 ‘글로브’(the Globe)의 공동 소유주이기도 했던 그는 은퇴에 충분한 돈을 모은 후 40대 후반 낙향한다.



민경훈 (법대 78)

이처럼 젊어서 품은 꿈을 이룬 그였지만 말년에 쓰인 4대 비극과 말기 대표작 ‘폭풍’(Tempest) 곳곳에는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쓸쓸함이 묻어난다. “What a piece of work is man... and, yet to me, what is this quintessence of dust?”(험릿) “Life i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who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맥베스) “The solemn temples, the great globe itself, Yea, all which it inherit, shall dissolve.”(폭풍)

1613년에는 그가 아끼던 극장 ‘글로브’가 화재로 전소되고 1616년에는 그가 52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오는 23일은 그가 죽은 지 400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말대로 ‘은 세상은 무대’고 우리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위에서 허우적대다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초라한 배우인지 모른다. 그의 명복을 빈다.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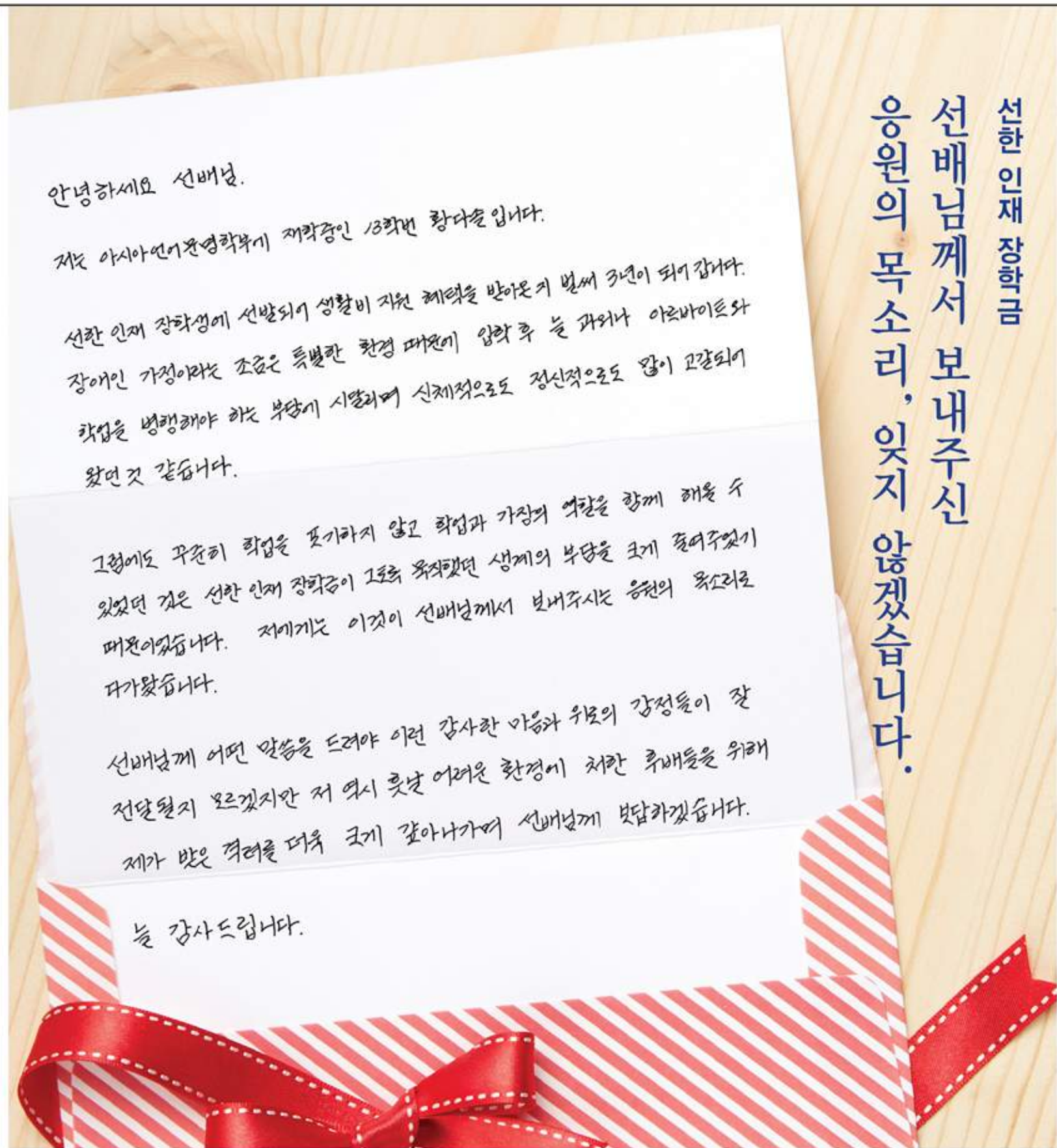


사람의 눈물에 관대하자. 함만 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짙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로 끝내며 주인공 보암달이 죽어서 한국에서 태어나기를 빈다.. 라고 쓰신 글이 애잔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

강의가 끝난 후 맥주 한잔으로 이어진 자리에서 선배님의 연을 쫓는 아이(the kite runner)의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와 이창래의 비교 또한 훌륭했다. 뉴욕 같이 동부에서 살다가 서부로 금광찾아간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가 없는 서부가 정이 안든다고 한다. 반면에 이 세상에 뉴욕같이 재미있는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절대 살 수 없다고 문화면에 자부심을 갖는 동부에 사는 나도 아크로의 인문학강의에 기가 짝 죽어 돌아왔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공황에서 바로 오신 선배님, 진지하게 강의 내용을 받아 적으시는 선배님 중간 휴식시간에 간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 모두 다 인문학 강의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게 분명했다. ‘아크로 인문강좌’, 켈리가 부러운 이유가 될 것 같다. 글: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선한 인재 장학금**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응원의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제1 아시아언어권영학부기 제1학기인 13학년 학다들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에 선발되기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아온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장이인 가정이라는 조그은 특별한 환경 때문에 입학 후 늘 괴로와 아픈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시달리며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갈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에도 꾸준히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가정의 역할을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인재 장학금이 그로써 육체적인 생계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선배님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의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런 감사한 마음과 위문의 감정들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훗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후배들을 위해  
 제가 받은 격려를 더욱 크게 알아나가며 선배님께 보답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

**이렇게 쓰입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매월 생활비 30만원(\$300) 지원

**이만큼 필요합니다**  
 학기당 750명 대상  
 매년 27억원(\$2,700,000)  
 360만원(\$3,600)이 모이면 한 명의 학생  
 에게 1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억원(\$90,000,000)이 모이면 기금  
 운용 수익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or.kr](http://www.snu.or.kr)에 방문  
 하시어 미주재단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LA사무소  
 전화 +1-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mailto:america@snu.ac.kr)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 기부자**

고광선(공대 57)	직접현달
권영달(문리 50)	100
이시현(문리 52)	100
김명순(간호 61)	500
김순덕(간호 65)	500
로렌스현(경영)	500
박원준(공대 53)	300
박혜옥(간호 69)	300
서 진간호 56)	100,000
손재욱(가정 77)	2,000
윤동해(농대 74)	3,600
오상희( CA)	500
이창성(농대 76)	100
임창희(공대 73)	1,000
이창섭(공대 57)	250
윤영재(간호 65)	500
정순열(사법 50)	100

**[신간]**

강창욱(의대 55) 동문이 번역한 책 '이광수의 단편소설들, The Best short stories of Yi Kwang-Su'이 Dorrance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춘원 이광수 연구회에 들어갔다가 발목이 잡혀, 이렇게 춘원의 소설들을 번역하게 되었다는 강 동문은 2015년 11월 월간 문학지 '창조문예' 신인추천을 받아 수필가로 등단했다 (동창회보 259호 참조).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실렸다: 소년의 비애(少年의 悲哀)/ 육장기(齣莊記)/ 무명(無明)/ 꿈/ 난제오(亂啼鳥)/ 둘째개/ 죽은 새/ 나는 바쁘다/ 우리 소/ 제비집/ 여름의 유머(소가 웃는다)/ 인생과 자연(人生과 自然)/ 인토(忍土)/ 서울 열흘

강 동문은 이 몇개의 단편과 수필에 가까운 글을 모은 이유가 1938년부터 1946년 사이에 춘원이 가장 괴로워 할 때라고 추측하여 그 때 것들을 모았다고 밝힌다.

그러나 그 후 사경에서 살아나 얼마 되지 않아 친일 행각을 서슴없이 하게 된 안타까움이 있다.

춘원을 가장 괴롭게 했던 구조전의 유교적 풍조와 스스로가 고아로서 친척집에서 겪은 것이 거의 인생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소년의 비애'를 첫번째 작품으로 하고 마지막의 '서울의 열흘'은 우리 사회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어 이 두 글이 작가에게는 마치 이 단편모음의 따옴표 같다고 말한다.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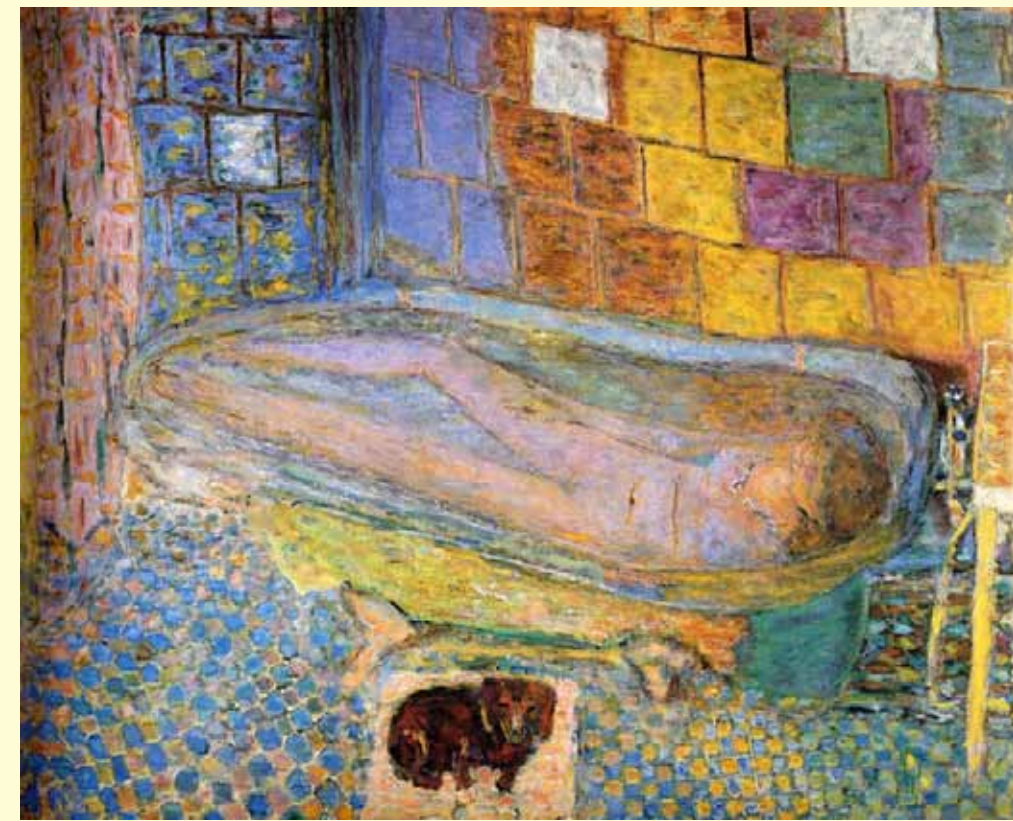


박혜숙 (미대 74)

피에르 보나르(1867 ~ 1947, Pierre Bonnard)의 그림을 보러 샌프란시스코의 리전 오프 오퍼 뮤지엄에 다녀왔다. 보나르 전시가 열린다고 샌프란시스코 화가들의 기대가 쫓고 쫓 다시 보고 싶은 전시라며 환호했다.

병을 앓았던 그녀는 그를 화가 친구들로부터 소외시켰고, 피부병 치료를 위해 자주, 함께 자연 속의 요양원으로 여행을 했다. 그녀는 오래오래 목욕을 하는 버릇이있었기에 미술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구성과 색조의 목욕하는 여인의 그림(사진)을 그는 지속적으로 그렸다. 화단에서 소외되어 오로지 한 여인과만 함께한 고립된 생활은 오히려 오로지 그림에 매진할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하여, 가장 개성적인 그의 화풍이 무르익는데 기여했다.

**색채의 광휘로 빛나는 따뜻한 그림**



인상파가 빛을 그렸다면, 그는 빛이 아니라, 색조의 찬란한 광휘를 그렸고 일본화에서 영향을 받아 원근법을 따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을 그렸는데, 그의 그림 속의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속에 자연과 인간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일체감을 드러낸다. 당시의 비평가들은 마티스의 야수파와 피카소의 입체파의 강력한 새로운 사조에 거리를 두고 그 자신만의 조용한 내면의 화풍을 고집하는 그를 약한 화가라고 매도했다. 이에 마티스가 나서서 그를 회화의 대가라고 변호했고, 르동, 로트렉, 모네 등 당시의 대가들이 그의 그림을 인정하고 주시했다.

그림을 보는 대중의 시선을 바꾸어 미술의 새로운 사조를 시작하는 화가가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사조를 뛰어넘는 화가가 있다. 새로운 사조는 또 다시 새로운 사조에 의해 역사 속 과거의 화풍이 되지만,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영원히 아름다운, 찬란한 미를 창조하는 화가들은 유행을 쫓는 시대로부터의 고립을 이겨내며 오로지 홀로 그 자신만의 미의 실현에 온 생을바친다.

그는 무척 예민하여 눈앞의 사물을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일상 속에 포착하는 매혹적인 순간을 오래오래 숙고하여 내면에서 자라난 기억을 천천히 오랜 시간 음미하며 그렸는데, 죽음의 순간에도 아들에게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여 마지막 한 점을 더 찍었다는 일화가 있다.

자연과 인간이 아름다운 조화속에 빛나는, 범상한 일상의 깨어난 순간들을 그렸기에 생대계 파괴로 인해 더욱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관심을 갖게 된현대인들이 그의 그림에 매료되고 있다.

테러와 자연 재해 등 암울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지만, 그의 그림처럼 삶이 아름답고 고마운 은총이 또한 가득하다는 깨달음을 준 아름다운 그림들이었다.



# 현대음악의 시작



이현립 (음대 81)

현대 음악이 시작된 지도 이미 백년이 넘었다. 현대음악의 역사가 이렇게 길다보니 요즘 음악은 차별되게 동시대 음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던 어떤 요소들이 후기 낭만파음악과 현대음악의 선을 긋게 만든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성의 혁명과 리듬의 혁명이 음악사의 새 장을 열게 해준 것이다. 현대음악의 조상 아놀드 쉐베르그(1874-1951, 사진 우)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1882-1971, 사진 좌) 두 분을 돌아본다.

바그너, 말러등 후기 낭만파 음악에서는 곡의 기본 틀이 되는 조성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 말러가 매우 아끼던 오스트리아의 쉐베르그는 조성을 아예 없애고 12음을 평등하게 사용한다. 이 조성의 혁명은 집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것으로 고향집에서 시작해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더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쉐베르그는 작곡을 거의 독학으로 배운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지금 (1914년) 까지가 '평범한' 시대였다면 우리 시대의 음악은 아주 달라야 한다." 이런 진취적 생각이 음열주의

로 발전하는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하지만 그의 가곡이 연주되는 날엔 화가 난 관객들의 난동으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대중과 평론가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쉐베르그의 음악은 흥행이 망하는 보증수표로 통했다. 그럼에도 그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이다.

쉐베르그는 칸딘스키와 함께 전시회를 열기도 한 화가였다. 칸딘스키는 당시 유행하던 추상화풍의 선구자인데 바그너의 팬인 그가 쉐베르그의 무조음악에 감명을 받아 <인상3-컨서트> 라는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그의 음악을 좋아했다. 칸딘스키는 쉐베르그를 예술적 동지로 생각하고 많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깊은 우정을 나눴다고 한다.

그와 양대 산맥을 이루던 스트라빈스키는 예측 불가능한 리듬의 사용으로 리듬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때까지 음악의 주인공은 언제나 선율과 화성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리듬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현



대적 여러 요소들은 그 전 부터 약간씩 들어가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주연이 되어 명확한 박절도, 조성도 찾기 힘든 전위적 음악이 만들어진 것이다.

1913년 파리의 상젤리제 극장에서 초연한 그의 발레곡 '봄의 제전' 은 가히 '음악적 혁명'으로 꼽힌다. 미술쪽에서 마르셀 뒤샹이 번기를 하나 사다가 '샘'이라고 출품을 해 미술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 하며 미술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다면 음악에선 이 곡이 그처럼 대단한 사건이었다.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의 첫 장면은 '봄의 제전'이 초연되던 그 밤을 잘 묘사하고 있다. 무용수들의 기괴한 옷차림과 동작, 야만적이고 원시적 리듬에 가득 찬 음악에 관객들은 수 분만에 술렁이고 곧 욕설과 고함을 질러댔다. 백조의 호수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같은 공연을 기대한 관객들에게 이 날은 정말 괴상망측한 공연이었다.



영화에서는 샤넬이 이 공연에서 스트라빈스키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사랑을 시작하며 그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나오는데, 애정관계는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후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당시 스트라빈스키는 네 아이를 둔 이민 온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샤넬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교계의 중심이었다. 영화는 처음과 끝에 봄의 제전을 볼 수 있고 세련된 샤넬의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와 의상 감각을 볼 수 있어 꽤 인상적이었다.

스트라빈스키의 리듬은 곧 젊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인기를 얻는다. 그는 일생을 통해 다양하게 작곡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것은 초기 원시주의에서 다시 고전적으로 돌아간 중기 신고전주의, 그리고 흥미롭게도 말기 음열주의로 정리된다.

그 당시 스트라빈스키보다 베르크, 베베른과 신 빈 악파를 형성한 쉐베르그의 이성적 접근이 음악인들 사이에서 갈수록 대세로 여겨져 그의 감정을 건드렸다. 후에 두 사람 다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어 할리웃과 로스앤젤레스에 살았는데 서로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쉐베르그가 죽은 후 음열을 연구하고 음열주의 작곡을 했던 것이다.

뉴욕은 1차 대전 후 세계적 컨서트장이 되었다. 두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은 수 많은 훌륭한 망명 음악가들에게 큰 힘을 얻게되고 세계의 모든 악파가 공존하며 미국 특유의 실험정신으로 여러 모던 음악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곳이 되어갔다. 이제 미국은 현대 서양 고전음악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것이다.



현재 스코틀랜드에는 원주를 만드는 양조 증류장의 수가 1백개가 넘으며, 원주가 블랜딩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스카치 위스키의 종류만도 3천 개가 넘는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쥘니 워커, 화이트 레이블, 화이트 호스, 시바스 리걸, 블랙 앤 화이트, 헤이그 앤 헤이그, 발렌타인, 커티 샤크 등이다. 유명 브랜드 중 오래된 양조 회사로는 1801년에 시작된 시바스 리걸이 있고, 싱글 몰트 스카치인 글렌리벳(Glenlivet)은 1824년부터 생산되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므로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카치 위스키를 결정하게 된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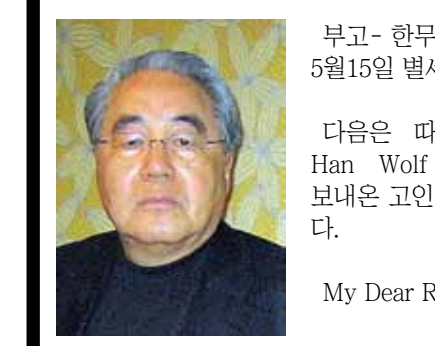


김지윤 (자연대 11)

“살인자 인권 그만 쟁겨라.” 지난주 SNS에 올라온 기사마다 달린 댓글들이다. 9일(월) 경찰은 걸터 1시간 만에 이번 '대부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언론사는 그의 사진을, 동영상은 전면이 걸렸다. 성난 여론은 들끓다 못해 기화하기에 이르렀다.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들이다.

문제는 '공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법 규정이 아니라 특강법을 토대로 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른다. 그러다 보니 공개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2012년 신선훈법인 오윤환은 걸터되자마자 얼굴이 공개됐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는 생소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호송과정에서 피호송자의 얼굴이 노출된 것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검경 내에서도 수칙을 개정하는 등 피의자 신상공개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강력 범죄 증가와 더불어 사회 여론과 법 감정은 가열됐다. 여전히 위험 논란에도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신상공개 범위가 확대됐고,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한다.



부고 - 한무영 듀크대 교수가 5월15일 별세하셨습니다.

다음은 따님되시는 Grace Han Wolf Cunningham 이 보내온 고인이 남긴 편지입니다.

My Dear Readers of IEKAS

This is an important announcement concerning a temporary suspension of IEKAS newsletters. Let me explain.

The face of Internet and digital communication has gone through epochal changes and continues to transform itself everyday. The younger generations, the millennials, no longer share information by traditional newsletter format. They are the generations of Facebook, Twitter, YouTube, LinkedIn, Tumbler and many other social media. In order for IEKAS to continue to be of relevance, it cannot stay as an old-fashioned print-type newsletter. It must also change with the times.

But the needed changes are not that easy, especially for an old-school old-timer. We need new young blood, young, dynamic and Internet-savvy energetic editor-in-chief who can carry the torch. Finding such an ideal young blood appears to be even more difficult, however.

At the personal level, I find my priorities are also shifting toward writing books, carefree traveling and more mobile lifestyle. After taking all these factors into account, I came to the

## 무엇을 포기하고 사는가

2015년 서초구 모녀 살해사건 피의자의 신상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례가 많지 않아 신상공개에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지만 2009년 이후 7년간 끊이지 않는 신상공개 찬반 논란은 일관성이 부족한 경찰의 대처를 방증한다.

## 성급한 '대부도 살인사건' 피의자 공개 기준 없는 피의자 공개 문제 심각해

또 특강법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권고가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 실제로 신상공개가 공익성에 이바지하는지 따져본 후야 피의자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번 신상공개는 무엇을 낳는가, 아직 형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 본인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긴 이르다. 여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걸리고 있다. 후에 무죄가 밝혀진 사건들의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신상공개로 침해된 인격권을 복구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 부고

conclusion that it is now a good time to take a breather and suspend IEKAS publication, at least temporarily for the time being. SKAS website will remain open with all its contents including KAF and others.

For a little over two decades I have had a great run, trying to live up to the motto, "To Inform, Enlighten, and Empower." I hope I have been successful in a small measure. I certainly enjoyed and learned so much during all this time. Let's hope IEKAS will be reincarnated soon in its ultra modern internet format that will grab the attention of future generations.

Moo-Young Han / Editor-in-Chief  
Society of Korean-American Scholars, SKAS  
Professor Emeritus of Physics Duke University



\*IEKAS stands for Information Exchange for Korean American Scholars (Duke University; Durham, NC)

This is my saddest and shocking moment in my life, and I am informing you with my heavy hearts that our beloved Editor-in-Chief, Professor Moo Young passed away on Sunday, May 15. I am attaching a story posed by his daughter Grace Han Wolf Cunningham in Face Book. Let's pray for his family and send our deepest condolence.  
Yoon Soo Park, PhD (미주총동창회 초대회장)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 '공익성' '인권'의 차원에서 이번 신상공개 사례를 논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걸터 1시간 만에 조 씨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다. 여론은 앞다 뒤 피의자의 평범함을 강조했다. 피의자의 주변인 신상까지 털린 후에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한다며 피의자의 SNS를 폐쇄했다. 분노의 말은 탑을 쌓다가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건으로 변했다. 인권 매뉴얼을 위해 수갑을 가리고, 상표는 테이프로 미리 감추던 이번 피의자 호송 장면은 신상공개 논란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분명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형량을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범죄에 대한 무기력한 극에 달했고, 그걸 해결하기보다 휘발시키는 데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왔다.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이때 왜 우린 화만 내고 지나쳐야만 했을까. 공분이 산화되는 풍경 속에서 쓰레기 같다 해도 거뒀어야 할 천부적 인권의 교환 가능한, 소비 가능한 개념으로 변질됐다. 논쟁이 지난 뒤 공허하게 남은 광장에서 공익도, 인권도 애저로 이 남겨져 있다.

\*모교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학신문'에서 부편집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김지윤 기자는 이번 여름방학동안 본미주총동창회를 방문해 동창회보를 위한 인턴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6월에 있을 미주평의원회 취재를 비롯해 편집진반에 걸쳐 활약을 기대해 본다.



What a sad news to all of us! Although he will be in the Kingdom of God in peace, I wonder how we can fill the vacuum in S&T field which has been created after loosing him. He was indeed a marvelous scientist and educator whom many of us owe to and give our full respect. I could not believe that the time with him at KAIST two years ago was last moments. But, I trust that he will be with us spiritually. My wife, Jee and I want to offer sincere condolence to Mrs. Han and his surviving families. With our deepest condolence,  
Kang-Won Wayne Lee

한무영 교수님, 교수님이 시작하신 IEKAS email newsletter는 제 inbox에 지난15년동안, 매주 어김없이 도착하였고, 실린 글들을 읽는 기쁨은 지루한 일상에서 새 활력을 부여해주었습니다. 전 공이신 물리학계 최신 연구뿐이 아니라 전세계를 아울러, 교육, 역사, 경제, 시사등 여러 분야에서 정성해 보내주시신 글들은 'To inform, enlighten and empower' 목적을 이루고도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4/22/2016자로 마지막이 된 newsletter가 교수님의 뜻대로, in its ultra modern internet format으로 계속 이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교수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어요. 늦게나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주 총동창회 이성숙 재무국장)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교수님의 글을 항상 즐겼는데 이제는 그 좋은 글을 더 읽을수가 없습니다. 고인의 한민족을 위하신 마음이나 나라를 사랑 하시던 그 충성스러우신 애국심을 어디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슬픈 마음이나 훌륭한 고인의 영원한 평안을 빌어 봅니다.  
윤상래 (미주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 【문화산책】 칵테일 상식 - 시리즈 3

김창수 (약대 64)

스카치는 보리의 맥아를 양조 증류한 것이다. 맥아를 양조 증류하면 무색 투명하고 그 맛이 대단히 거칠다. 이것을 셰리(Sherry)를 비롯한 포도주 양조에 사

용했던 참나무(Oak) 통에다 5~6년 동안 저장하면, 그 색도 변하고 맛도 부드럽게 숙성된다. 이렇게 숙성된 원주(原酒)는 간혹 그대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드문 일이고, 그 맛을 더욱 부드럽고 마시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원주와 중성 알코올을 섞는다. 이 섞는 작업을 블랜딩(Blending) 이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단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전회에서 기술한대로, 이렇게 섞어서 만든 위스키를 블렌디드(Blended) 스카치라고 하고, 한가지 맥아(Malt)로만 양조한 것을 싱글 몰트(Single Malt) 스카치라고 한다.

정확한 블랜딩은 맛보다 냄새로 결정된다. 원주가 참나무 통에서 저장되는 기간이 길면 갈수록 위스키의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도 비싸지는데, 그 한도는 30년이라고 한다. 스카치 위스키는 독특한 탄 맛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맥아를 말릴 때 토탄(Peat)을 쓰기 때문이다. 탄 맛은 토탄의 열과 연기로 그 냄새가 배어서 생긴 것으로 다른 위스키와 구별된다.



[영화]

# 황태자의 첫사랑



나두섭 (의대 66)

사람의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보다.

‘황태자의 첫사랑’의 영어제목은 “The Student Prince”인데 우리말 제목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황태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고 동화에 많이 등장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라 하겠다. 첫사랑이라는 말도 이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떠져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생각만해도 마음이 설레게되는 뜻을 수 없는 것이다. 황태자가 동경의 대상은 되지만 그도 궁정 밖에대한 호기심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영화는 같은 제목의 오페레타에 근거하여 1954년에 Musical 영화 (Edmund Purdum & Ann Blyth 주연 Mario Lanza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이미 이런 내용의 소설과 연극이 있었다. 신데렐라, 삼총사처럼 인기있는 즐거리는 여러번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이야기도 조금씩 다른 제목으로 1915년부터 시작하여 이 영화까지 합치면 네번 만들어졌다.



주인공은 늙은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독일안의 작은 왕국의 젊은 왕자 Karl 이다. 시대가 1900년이 되면서 사회 경험도 쌓을 겸해서 대학교육을 받으러 좋은 대학이 있는 Heidelberg로 보내졌다. Karl은 군대교육을 주로 해서 양육되었고 결혼하기로 되어있는 공주가 있었다. 대학도시에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밀려드는 학생들의 활기에 넘치는 행동들에 신분을 떠나서 압도되는 경험을 하였다.

속으로 정해진 곳에 학생들이 몰려오는 주말겸 식당이

있었는데 젊고 매력있는 barmaid인 Kathie가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모와 발랄함에 Karl 은 깊이 빠져 들었다. Karl은 다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결국 신분은 알려지게 되었지만 활발한 성격으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drink, drink, drink 로 시작되는 ‘Drinking Song’ 이다.

실제 노래는 Mario Lanza가 불렀는데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련하게 할 정도로 잘 부르고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1막에 나오는 촉매의 노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애청하는 노래가 되었다.

Karl이 Kathie와 깊이 사귀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왕가의 압력으로 Kathie는 잠시 일을 못하게 되었으나 워낙 다른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Kathie가 일을 멈추었을때 학생들이 맥주잔을 들고 함께 외쳐대는 “We want Kathie!”는 그녀의 인기를 대변해주고 있다.

할아버지의 노력으로 Karl은 궁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Kathie에게 “다시 돌아 오겠다”고 하였으나 Kathie는 속으로 “너는 다시 안 올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왕궁에 돌아간 Karl은 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첫사랑 Kathie를 못잊어 작별 인사를 하려고 Drinking Song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Heidelberg로 돌아왔다. 잠시동안 가진 시간이었지만 돌아오는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속삭였고 더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인정하고 가슴이 깨지는 듯한 아픔은 있었겠지만 눈물어린 시선을 뒤로 하고 깨끗하게 이별을 고하였다. 이렇게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만 신분을 초월한 순수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화에 나오는 세레나데를 부른 노신사 처럼 많은 청중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아쉬움을 간직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어쩌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오래 기억되는지도 모른다.

# 이달의 사진

SONY ILCE-7RM2, f/22, 3.2 sec, ISO-100, +0.8 step, 19 mm

‘Pemaquid lighthouse’ in Maine 박은숙 (미대62)



석양에 찍었는데 제가 본 석양 중 가장 훌륭한 석양이었지요. 너무 흥분되어 같이 간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이고 찍는데 셋터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 독자의 광장

6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ua.org

연설 “두도시 이야기”는 디킨스의 소설 “두도시 이야기”와 너무도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 디킨스의 소설의 첫머리를 서투르나마 번역해서 인용합니다. 한반도에 칠십년째 있어오는 남북의 대치상황과 너무도 흡사해서 읽니다.

“최상의 세월이었고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으며 우둔의 시대였다. 신뢰의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다. 광명의 시대였고 암흑의 시대였다. 희망이 싹트는 봄철 같았으며 절망이 깃누르는 겨울 같았었다. 우리들의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으며 또한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이 천국같이 될 것같이 보였으며 또한 그 반대로도 보였다. ...”

평의회에 참석은 못하지만 미리 오대사의 연설을 들은 셈 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석호(공대66)

무어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6.25 에 납치되신 저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의 따님과 연락할 수 있게 소식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정자님계서도 연락의 수고를 해주셔서 무척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가족같은분과 통화를 할수 있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서안희(간호 63) 드림.

서안희 동문님,

이달 동창회보 5월호의 19면 기사를 보시고 보스턴에 계시는 이용식 동문님의 사모님이신, 지정자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정자님은 지철근님의 따님으로 서안희 동문님의 아버님과도 잘 아시고, 꼭 찾으시고 싶다고 합니다.

미주총동창회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에서 오준 유엔대사가 오는 유월의 평의회의 Keynote Speaker 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이 독후감을 보냅니다.

서울대와 연대가 다른점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이문열 작 ‘사람의 아들’ 과 故 최인호 작 ‘별들의 고향’ 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소설 ‘사람의 아들’의 주인공 ‘아하스 페르츠’를 통해 서울대 출신 이문열씨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고민하고 사유해서 그 답을 얻으려 하지 않고 구차스럽게 신의 앞에까지 들고 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해답을 얻으려는 비굴한 태도를 타기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페르츠는 신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내미는 화해의 손을 거부하며, ‘남녀간의 사랑’ 마저도 신이 인간을 괴롭히고 정죄하기 위해 인간의 유전자 속에 하드와이어해 놓은 한낱 “성적인 본능” 정도로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를 한낱 성적 욕구의 분출을 위한 배설 정도로 생각하며 이것에 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식의 자세가 서울대 출신들의 태도라고 한다면 최인호씨는 ‘별들의 고향’의 두 주인공을 통해 인생은 신이 내리신 소중한 기회이며 그 중에서도 ‘남녀간의 사랑’은 그 결실이 있든 없든 간에 반지의 보석같이 인간이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고 보람임을 주장합니다.

이 장황한 서투는 유엔대사 오준 동문의 북한인권 관련 연설내용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을 연대 출신으로 생각했을 만큼 그 연설 내용이 매우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번 동창회보에서 오준 대사가 유엔 경제이사회 의장으로 취임 하면서 했다는 연설 ‘두 도시 이야기’ 는 또 한번 오 대사의 그러한 면을 느끼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 대사에게서는 여타 서울대 동문들에게서 느끼기 어려운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준 대사가 후에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여성들의 표를 많이 얻어 쉽게 당선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권해 보고 싶습니다.(^\_^) 앞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후학들에게서 더욱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편집후기]** 총동창회 분부 사무실이 분주하다. 제 25차 미주평의원회의가 이달에 열리기 때문이다. 2박 3일의 일정이지만 호텔, 식사, 교통편, 회의를 위한 각종 자료와 서류바인더, 상패, 기념품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런 와중에 마지막 순간에 들어오는 중요한 원고나 지부소식 등을 신기위해 6월호를 가편집, 편집, 재편집, 재재편집, ... 해 가며 만들어내야 한다. 현 편집위원회가 작년 7월호부터 시작했으니, 이번 6월호가 열 두번째다. 딱 1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각 지부회장님들의 협조도 감사하고, 편집위원님들의 수고에도 감사하다. 특별히 남가주에서 편집위원으로 참가한 홍선재 위원을 통해 보내오는 각종 칼럼이 동창회보를 아름답게 꾸며준다. 이제 앞으로 1년은 또 어떻게 해야 동문들에게서 더 사랑받는 회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동창회의 목적을 잘 수행해서 많은 동문들이 소통하고 나누는 회보를 만들 수 있을까? 부족한 사람이 편집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곤 한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6월1일 현재, 동창회 회비 (75불)을 보내 온 동문이 1,000 명을 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제 10대 시카고 회기 (송순영 회장) 이후 처음이리니 6, 7년 만에 처음 1,000 여명의 동문들이 회비를 보내온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부족한 재정으로 하고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현 집행부에게도 힘이 되는 일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1년도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린다. 특별히, ‘원고 좀 보내주세요!’, ‘특집 주제에 많이들 참가해 주세요!’, ‘회보를 읽고나서의 소감들을 보내 주세요!’ 라는 바램을 말씀드린다. ‘감사합니다.’

편집장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	
업소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연 \$1,0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240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	<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
*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302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종신 이사회비		
<b>보낼 곳 :</b>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a.org		
<b>지불 방법 :</b>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b>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b>		
<b>Card No.:</b>		<b>Security Code :</b>
<b>Cardholder's Name :</b>		<b>Expire Date:</b>
<b>Address No. Only</b>		<b>Zip</b>
<b>Pay to order of ‘SNUAA-USA’</b>		



## 동창회비 (2015.7 ~ 2016.6)

동창회비 명단이 7월호부터 새 회기가 기재됩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RS Tax Exempt 번호- Federal TIN: 13-3859506

<b>동창회비:</b>	박은숙(미대 62)	이재권(법대 56)	홍수용(의대 59)	<b>뉴욕</b>	서경애(음대 67)	장대옥(음대 57)	윤귀현(공대 77)	노영일(의대 62)	<b>오레곤</b>
	박인수(농대 64)	이재룡(공대 71)	홍순택(사대 59)	<b>NJ/NY/CT</b>	서병선(음대 65)	장동만(문리 55)	전중희(공대 59)	문광재(의대 62)	<b>OR/ID</b>
<b>남가주</b>	박인창(농대 65)	이재선(농대 58)	황규혁(공대 50)	강교숙(간호 73)	서상철(의대 50)	장영자(간호 68)	조진태(문리 57)	민영희(공대 65)	김상만(음대 46)
<b>S,CA/NV</b>	박임하(치대 56)	이정근(사대 60)		강석권(법대 61)	서영숙(간호 67)	장화자(간호 60)	탁혜수(음대 67)	박희진(농대 78)	김상준(상대 67)
	강경수(법대 58)	박자경(사대 60)		강영선(공대 50)	서정용(약대 63)	전병삼(약대 54)		박용순(의대 53)	김영철(치대 61)
	강동순(법대 59)	박재인(약대 60)		강에드워드(사대 60)	석창호(의대 66)	정순기(문리 69)		박창욱(공대 56)	김영철(치대 61)
	강정훈(미대 56)	박종수(수의 58)		강제호(상대 57)	고순정(간호 69)	정인식(상대 58)		배영섭(의대 54)	김영철(치대 61)
	강중경(공대 48)	박찬호(농대 63)		강정수(문리 61)	곽노섭(문리 49)	정인용(의대 65)		이은철(문리 53)	김영철(치대 61)
	강홍제(상대 53)	박찬호(공대 58)		이중희(의대 53)	권오형(사대 61)	정창동(간호 45)		최준한(농대 58)	김영철(치대 61)
	강희창(공대 57)	백취서(약대 60)		이정화(공대 52)	김광환(농대 63)	조규용(의대 5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고석원(문리 50)	박창선(공대 55)		이정광(상대 61)	김병호(상대 57)	조남천(사대 5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고영순(음대 59)	박태호(치대 66)		이재진(문리 55)	김상운(약대 59)	조아미(음대 61)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고용규(의대 69)	방명진(공대 73)		이 청(농대 61)	김길평(상대 62)	조정현(수의 58)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권기수(경영 72)	손복자(공대 65)		이학은(약대 57)	김영춘(수의 64)	조종수(공대 64)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권영달(문리 50)	박병욱(음대 58)		이혜영(공대 56)	김영호(사대 56)	조태환(상대 56)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권영재(문리 57)	백효식(문리 52)		이홍표(의대 68)	김옥경(음대 69)	조공로(공대 68)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강수(문리 59)	백소진(문리 55)		이희충(공대 58)	김완기(사대 50)	조광호(공대 68)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경옥(미대 61)	김동규(미대 71)		임동주(미대 57)	김동진(약대 56)	조국만(상대 53)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광은(음대 56)	백정애(간호 69)		임동호(약대 55)	김명철(공대 60)	최구진(약대 54)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광현(상대 69)	서병희(농대 67)		임민빈(상대 68)	김경희(의대 56)	최대순(간호 5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교복(농대 63)	서치원(공대 69)		임진환(치대 58)	김현왕(공대 64)	최영태(문리 67)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구자(미대 61)	손학익(공대 66)		임창희(공대 73)	김희봉(공대 68)	최영태(간호 64)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규현(법대 53)	성낙호(치대 63)		임화식(치대 59)	남광순(음대 64)	최일단(미대 55)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기태(의대 54)	손기용(의대 55)		장기창(공대 66)	남승재(공대 66)	최일환(미대 55)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기형(상대 75)	손선경(간호 69)		장정용(미대 64)	노문희(사대 56)	최환용(농대 58)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낙구(상대 67)	손학식(공대 61)		장 준(문리 85)	김성수(공대 59)	최형무(법대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동산(법대 59)	송기성(사대 52)		장진성(약대 66)	박경룡(약대 63)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동석(음대 64)	신동국(수의 70)		장정철(공대 55)	박노면(사대 50)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병완(공대 58)	신상화(공대 58)		전낙관(사대 60)	박서규(법대 56)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석두(음대 58)	신영찬(의대 63)		전범수(농대 71)	박원준(공대 53)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석홍(법대 59)	신정연(미대 61)		전상욱(사대 52)	박찬희(자연 81)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선기(법대 59)	심삼은(상대 54)		전순열(사대 )	박찬형(의대 58)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성욱(간호 81)	안병일(의대 63)		전성태(사대 60)	변영근(수의 52)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수영(사대 57)	안영일(법대 61)		전정훈(공대 57)	김영철(의대 58)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순길(법대 54)	양승문(공대 65)		전동주(가정 72)	송정자(의대 67)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순자(치대 57)	양운택(의대 58)		전영웅(상대 63)	안병형(공대 58)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순희(음대 53)	양은혁(상대 56)		전인환(법대 54)	안영섭(공대 80)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원경(의대 59)	장예환(상대 54)		전정환(상대 63)	안 진(음대 94)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옥경(가정 60)	염동해(농대 64)		정재화(상대 59)	원미람(미대 65)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용재(의대 60)	오송자(사대 59)		정재훈(공대 44)	은기철(의대 65)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인종(농대 74)	유위중(공대 64)		정태무(사대 44)	윤성희(사대 58)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일영(의대 65)	유정일(의대 59)		정재창(치대 69)	이근식(의대 65)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종태(상대 58)	유의영(문리 56)		정현진(간호 68)	이강우(문리 59)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준일(공대 62)	윤경민(법대 55)		정 황(공대 71)	이관보(공대 55)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지익(의대 45)	윤동준(의대 57)		정재환(상대 67)	이계승(공대 67)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찬명(상대 55)	이건일(의대 62)		정준호(상대 54)	이기준(법대 54)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창무(음대 53)	이경수(수의 73)		정주상(법대 70)	이문영(문리 60)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충현(문리 72)	이 관(공대 55)		정소상(치대 64)	이정욱(가정 71)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태근(공대 59)	이규달(의대 62)		정일철(약대 58)	이진영(의대 65)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태윤(법대 53)	이근웅(의대 61)		정재훈(상대 64)	이현숙(사대 62)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택수(의대 57)	이근원(공대 67)		정정시(공대 60)	이흥기(공대 62)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홍목(문리 60)	이기재(사대 52)		정초창(간호 61)	임정란(음대 76)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희자(사대 63)	이마이클(치대 63)		정준재(상대 54)	노용민(의대 49)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김희창(공대 64)	이방기(농대 59)		정유석(의대 58)	민발식의(의대 60)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나두섭(의대 66)	이범식(공대 61)		정진수(공대 56)	민준기(공대 59)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나민주(음대 65)	이병철(상대 55)		정진수(공대 58)	박진우(공대 60)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나승욱(문리 59)	이상대(농대 80)		정창희(법대 54)	박경숙(간호 72)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노명호(공대 61)	이서희(법대 70)		정창희(법대 54)	조태묵(사대 60)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노영준(문리 48)	이성숙(공대 56)		최정희(법대 54)	최경선(농대 65)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문병길(문리 61)	이소희(의대 61)		최정희(법대 54)	최명용(법대 64)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문병하(법대 51)	이양구(상대 57)		최정희(법대 54)	한근배(공대 65)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문인일(공대 51)	이연주(가정 52)		최정희(법대 54)	한만섭(공대 47)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문일영(음대 66)	이영일(문리 53)		최정희(법대 54)	한상봉(수의 67)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문병돈(문리 58)	이영일(문리 73)		최정희(법대 54)	홍경삼(문리 61)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박병원의(의대 49)	이원택(의대 65)		최정희(법대 54)	홍병익(공대 68)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박부강(사대 64)	이의덕(신문 70)		최정희(법대 54)	황동하(의대 65)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박순희(간호 70)	이익삼(사대 58)		최정희(법대 54)	황선익(약대 72)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박우성(상대 77)	이장길(치대 63)		최정희(법대 54)	황만익(사대 59)	최해자(간호 69)		홍영욱(음대 54)	김영철(치대 61)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RS Tax Exempt 번호- Federal TIN: 13-3859506

신우계(의대 62)	장수영(공대 57)	WASHINGTON	강창석(의대 73)	중부텍사스	송영두(의대 56)	정태광(공대 74)	유호준(의대 52)	김 현(사회 93)	이은미(자연 83)
안순건(문리 55)	장우희(사대 54)	김동호(농대 58)	김성호(법대 50)	MID-TEXAS	신상재(수의 59)	정학량(약대 56)	이재택(법대 60)	서갑식(공대 70)	임영신(의대 54)
안창호(약대 70)	전기택(의대 53)	김석민(사대 55)	김순욱(의대 54)	채영철(공대 50)	신선자(사대 60)	정종택(상대 61)	송순영(문리 52)	우양구(법대 70)	오태요(의대 56)
안태민(공대 62)	정계훈(문리 55)	김영창(공대 64)	김용건(문리 48)		신성식(공대 56)	조정현(수의 58)	송용택(의대 57)		정민재(농대 70)
양광수(공대 73)	정기순(간호 67)	김인배(수의 59)	김영서(상대 54)	<b>필라델피아</b>	심영석(공대 76)	조영호(음대 56)	전영자(미대 58)	<b>하와이</b>	최은관(상대 54)
오광동(공대 52)	정양수(의대 60)	김재훈(공대 72)	김용자(사대 60)	PA/DE/S,NJ	심완섭(의대 69)	주기목(수의 68)	정진목(의대 50)	<b>HAWAII</b>	
오인환(문리 63)	정원자(농대 62)	박진수(의대 62)	김태형(의대 57)	강영배(수의 59)	김희진(음대 90)	지재원(사대 68)	조동건(공대 69)		김승태(의대 57)
이영목(공대 59)	정평희(공대 71)	송 준(공대 55)	백낙영(상대 61)	고영자(치대 63)	안세현(의대 62)	지흥민(수의 61)	최준희(의대 58)		남궁중(공대 52)
우체형(상대 54)	조남현(의대 64)	윤태근(상대 69)	송준수(의대 50)	김경희(가정 71)	임종욱(미대 61)	차호순(문리 60)	한기빈(공대 52)		김동수(의대 60)
원종민(약대 57)	조성호(공대 85)	이동립(의대 52)	안승택(상대 51)	김국찬(치대 64)	오진석(치대 56)	최정용(공대 64)	홍순호(수의 74)		김성철(의대 61)
유덕영(공대 57)	조순자(의대 52)	이원섭(농대 77)	양정자(간호 61)	김유하(상대 63)	유기병(문리 64)	최준무(상대 63)	최정윤(사범 51)		김정환(의대 81)
유영준(의대 70)	조화유(문리 61)	이회백(의대 55)	오경호(수의 60)	김무형(약대 63)	윤경숙(문리 59)	최준문(공대 61)			김태훈(공대 57)
유홍필(자연 74)	진금섭(의대 57)	최준한(농대 58)	유우영(의대 61)	김영우(공대 55)	이규호(공대 56)	최현태(문리 62)			김한섭(의대 53)
윤경의(공대 57)	진학숙(약대 82)	홍영욱(음대 54)	이명재(상대 54)	김재술(약대 58)	이상봉(문리 65)	한용오(보건 70)			박유미(약대 62)
이내원(사대 58)	최기식(상대 64)	홍재인(음대 60)	임수암(공대 62)	김정현(공대 68)	김재술(약대 58)	이성현(사대 52)			김승희(법대 55)
이문환(공대 46)	최경미(사범 55)	김명해(미대 77)	정일환(상대 55)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이성숙(가정 74)			김명자(문리 62)
이선구(문리 65)	최정미(사범 55)	김성환(의대 66)	김현영(수의 59)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이성숙(가정 74)			김명자(문리 62)
이영재(치대 66)	한의생(수의 60)	김성환(의대 66)	김인기(문리 58)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이성숙(가정 74)			김명자(문리 62)
이재승(의대 55)	한인섭(문리 55)	김성환(의대 66)	마철일(의대 62)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이성숙(가정 74)			김명자(문리 62)
이준영(치대 74)	홍영석(공대 58)	김성환(의대 66)	한 호(상대 62)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이성숙(가정 74)			김명자(문리 62)
임종진(의대 91)	홍영석(공대 51)	김성환(의대 66)	하지영(문리 66)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이성숙(가정 74)			김명자(문리 62)
임창주(공대 55)	워싱턴주	김성환(의대 66)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이성숙(가정 74)			김명자(문리 62)
임필순(의대 54)		김성환(의대 66)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이성숙(가정 74)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이영일(문리대 53)  
**Howard Y. Ree**  
370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760-3700 Fax: (213) 383-2515  
email: howardree@gmail.com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광고문의: (484)344-5500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en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 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판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치과**

**배윤범 치과**  
배윤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ape.org, jschung@isoa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미주총동창회 제25차 전국 평의원회 일정  
June 24-26, 2016

Time/Date	6/24, 금요일	6/25, 토요일	6/26, 일요일
AM 7:00-8:30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8:30-9:00	Registration	Registration	Free Time
9:00-10:00	<b>Brain Network symposium</b>	<b>평의원회</b> * 평의원만 참석 가능	예배 / Free Time
10:30-12:00			Move to Golf Club - 접수 10:30 am
PM 12:00-1:00	Lunch	Lunch & Photo	<b>Lunch &amp; Photo</b>  <b>Golf Outing</b> @Center Sq. golf club Tee time 12:00 pm \$100/person  <b>Dinner &amp; Winner Presentation</b>
1:00-1:45	<b>Brain Network symposium</b>	<b>평의원회</b> * 평의원만 참석 가능	
1:45-3:30	<b>Local Tour</b> @Valley Forge National Park	Free Time	
3:30-5:00		Registration & Social Mix	
5:00-6:00	<b>전야제</b> @DoubleTree Hotel	<b>평의원회 만찬</b> 축사: 성낙인 총장 Keynote Speaker: 오준 UN대사 음악회 및 친목	
6:00-8:00			Hotel
8:00-9:30			Hotel
9:30-11:00	지부장모임	Hotel	Hotel

**Brain Network Symposium Schedule**

09:20-10:00 :김용원 (경연대학원 66) University of Cincinnati 교수  
"글로벌시대의 한국경제와 금융: 도전과 비전"

10:00-10:40 :김연호 (외교 88) 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한반도 국제정치"

11:00-11:40 :김영수 (공대 76)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교수  
"한미과학계의 연결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

11:40-12:20 :한창규 (의대 75) University of Pennsylvania 교수  
"다양한 소인들이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병리 기전에 관하여"

\*Brain Network Symposium Free

\*등록은 6월23일(목요일)5:00pm Hotel에서 가능합니다.

\*23일(목요일) 6:00pm 환영식사, '아리수'식당  
1002 W Skippack Pike, Blue Bell, PA 19422  
Tel: 215-654-8900

장소표기: Hotel: CVC: 야외:

- 평의원회 장소: Calvary Vision Center (CVC)  
550 Township Line Rd. Suite 200, Blue Bell, PA 19422
- Hotel: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640 Fountain Road, Plymouth Meeting, PA 19462-1003  
Tel: +1-610-834-8300, Fax: +1-610-879-4242
- Hotel 예약마감: 6월10일, 등록은: <http://goo.gl/6E7dYK>  
1 King Suite w/Sofa Bed: \$117  
2 Double Suite w/Sofa bed: \$127
- 평의원 회비: \$100  
일반 회원및 가족 참가비: 전야제 \$60, 평의원회 만찬 \$100  
Spouse Program: 6월25일 Visit Lancaster(9am-5pm) \$80
- 문의: 484-344-5500 Ex.302, Email: general@snuuaa.org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I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건축**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 (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t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료**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귌)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감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선희(공)  
고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 심희진(음) 사업국장 | 한중희(공)  
조직국장 | 백옥자(음) 심외국장 | 박형준(공)  
재무국장 | 이상숙(가정)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사무장 | 이제니  
(Webmaster)

**회보 : 발행인 손재욱(가정)**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주필 | 정홍택(상)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상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 차임경(가정)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 이혜림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이  
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원(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Feb-Feb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레(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중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NY/NJ/CT	회장 민준기(공대 59)	845,270,0451	joonmin1@yahoo.com	Jan-Dec
	차기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의인(공대 68)	781,862,5270	euinlee@verizon.net	Jul-Jun
	차기회장 홍지복(간호 70)	401,782,8000	hongjeebock@gmail.com	
달라스 LA/DALLAS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IL/IN/WI/MI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OR/ID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_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mmss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강창석(의대 73)	770,825,1004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J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ul-Jun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윤기행(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csg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ocdds@gmail.com	
휴스턴 HOUSTON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제37차 총동창회 Homecoming Day 방문단 모집**

올해는 서울대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주최 10월 16일(일)에 있는 Homecoming Day 행사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Tel. 484-344-5500 Ext.302 또는 general@snuua.org

**COTTMAN Animal Hospital**  
215-745-9030 Fax: 215-745-3055  
3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주거목 (수의 68)

Keep Your Pets the **Happiest and Healthiest**  
With Our Veterinary Services

Pat Treatment | Surgical Services | Pet Dentistry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15th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TimHaahs**  
PLANNING PARKING | CREATING PLACES | HELPING PEOPLE  
Atlanta | Jacksonville | Miami | New Brunswick | Philadelphia  
484.342.0200 WWW.TIMHAAHAS.COM

서울대 동문 10% 할인  
환자이긴 하지만 가까운 당신  
기질은 흔해 듀오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시각을 바꾸면, 기회가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급속도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지탱해 오던 기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팬콤은 광고와 마케팅, 조사, 이벤트, 멀티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각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기회를 한발 앞서 찾아 드립니다.

**PANCOM**

김영민 (농 72)

3701 Wilshire Blvd. Suite 800, Los Angeles, CA 90010 / [www.pancom.com](http://www.pancom.com) / (213) 804-8517